특별연구 2011 · 02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 : 박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서 문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책의사결정자에게는 관광부문의 신규투자 및 정부재정투자가 국민경제에 얼마만큼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을지가 주된 관심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국민 경제내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의 비교를 통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관광지출에 의한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 관광산업은 고용창출과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 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도 관광산업의 효과가 점차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과 부가가치율도 제조업 및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경제 및 관광여건에 대응하여 관광부문의 투자확대와 수요창출은 관광이 국민경제활성화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연구수행에 자료제공의 도움을 준 한국은행 투입 산출팀과 유익한 자문의견을 제공한 자문의원 및 연구 심의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정은 연구보조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가 관광부문의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정 광 렬**

연구요약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민경제내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관광부문에서의 민간 지출 및 정부 재정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정책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임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9년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은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측정, 관광관련 산업과 타산업과의 경제효과에 대한 비교평가 및 국내·외 관광객지출의 경제파급효과분석 등은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0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유발승수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둘째, 산업연관표에서 분류한 관광산업과 타산업의 승수효과 비교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 제공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관광산업 분류 및 산업연관모형 분석체계 설정
- 관광산업 분류에 대한 관광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기준 비교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 생산·소득·고용·취업·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비교·분석
- 관광지출(국내관광객 및 외래관광객)에 의한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분석 및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제언
- 외래관광객 지출과 주요 수출품의 비교 분석

○ 연구 방법

- 산업연관표 상의 관광산업 분류를 위해 기존 연구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표(2009년 기준)를 활용하여 산업연관 분석
- 산업연관 분석의 자료 처리를 위한 역행렬 계산 및 유발승수효과 분석의 자료처리는 MS-office 엑셀 2007 활용함

2.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분류

○ 이강욱(2010)의 연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국제관광표준분류(SICTA)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9년 산업연관표의 403기본부문과 비교하여 관광산업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조정함

○ 산업연관표에서 관광쇼핑은 '소매부문(322)'과 연계시키며, 식음료 부문은 '일반음식점(323)', '주점(324)', '기타음식점(325)', 숙박업은 '숙박(326)', 관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은 '철도여객운송(327)', '도로여객운송(329)',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332)', '외항운송(333)', '항공운송(334)', 그리고 운수보조업은 '육상운수보조서비스(335)', '수상운수보조서비스(336)', '항공운수보조서비스(337)'로 연계함

○ 차량임대업은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368)', 여행업은 '기타사업서비스(371)', 문화·예술 공연은 '문화서비스(386, 387)', '영화제작 및 배급(388)', '영화상영(389)',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390)', 운동경기는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391)', 오락 및 유흥은 '기타오락서비스(392)'로 연계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

〈표 1〉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분류

관광산업명칭	산업연관표 403부문 통합방식		비고
1. 소매업 (관광쇼핑)	322	소매(○)	- 관광객의 관광기념품 구매, 농산물, 섬유가죽 제품 등 유통마진 등이 해당
2. 식음료	323	일반음식점(○)	- 음식점, 유흥음식점, 주점업 등
	324	주점(○)	
	325	기타음식점(○)	
3. 숙박업	326	숙박(○)	- 관광숙박업 호텔업 및 여관업
4. 여객운송	327	철도여객운송(○)	- 육상운송, 내항 운송, 외항운송
	328	철도화물운송	
	329	도로여객운송(○)	
	330	도로화물운송	
	331	택배	
	332	연안및내륙수상운송(○)	
	333	외항운송(○)	
	334	항공운송(○)	
5. 운수보조업	335	육상운수보조서비스(○)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 운영업
	33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337	항공운수보조서비스(○)	
	338	하역	
	339	보관및창고	
6. 차량임대업	368	기계장비및용품임대(○)	- 관광 관련 자동차 임대 등
	369	청소및소독서비스	
	370	인력공급 및 알선	
7. 여행업	371	기타 사업서비스(○)	- 일반 및 국외여행업,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8. 문화예술공연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 문화예술공연 (영화, 공연, 박물관 연극, 음악)
	387	문화서비스(기타)(○)	
	388	영화제작 및 배급(○)	
	389	영화상영(○)	
	390	연극,음악및기타예술(○)	
9. 운동경기	391	운동및경기관련서비스(○)	- 경기장운영, 스포츠 서비스, 골프장/스키장,
10. 오락및유흥	392	기타오락서비스(○)	- 게임장, 갬블링 등

주 1) '2009년기준 전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1)'를 기준으로 관광관련 산업부문을 분류함
2) ○: 관광관련산업 특성으로 세분류 불필요.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으로 분류함

3. 관광산업의 승수 효과

○ 2009년 생산유발승수효과에서 제조업종의 평균 승수(2.0870)가 관광산업 승수효과 평균(1.652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승수는 20.8846/10억원이며, 전산업 평균(15.1576/10억원)과 제조업 평균(9.8745/1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유발승수는 12.8848/1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역시 전산업 평균(9.8039) 및 제조업 평균(7.38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제조업과 비교하여 약 1.4 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관광산업과 타산업간의 승수효과 비교

구 분		2009년 (A)	2008년 (B)	차이(A-B)
생산유발승수	관광산업	1.6526	1.6339	0.0187
	전산업	1.8826	1.8676	0.0149
	제조업	2.0870	2.0686	0.0183
소득유발승수	관광산업	0.3396	0.3368	0.0028
	전산업	0.3102	0.3085	0.0017
	제조업	0.2468	0.2444	0.0024
취업유발승수 (명/10억원)	관광산업	20.8846	18.1333	2.7514
	전산업	15.1576	14.6922	0.4654
	제조업	9.8745	10.1184	-0.2439
고용유발승수 (명/10억원)	관광산업	12.8848	10.7270	2.1578
	전산업	9.8039	9.3412	0.4627
	제조업	7.3889	7.3624	0.0265
부가가치 유발승수	관광산업	0.8331	0.8229	0.0102
	전산업	0.7308	0.7141	0.0167
	제조업	0.5946	0.5725	0.0221
수입유발승수	관광산업	0.1669	0.1771	-0.0102
	전산업	0.2692	0.2859	-0.0167
	제조업	0.4054	0.4275	-0.0221

4. 외화가득률 및 부가가치율 비교

○ 외화획득 기여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은 2008년, 2009년 모두 관광산업이 전산업 평균과 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83.3%)은 2008년(82.3%)보다 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산업의 평균(73.1%), 제조업의 평균(59.5%)보다 모두 높게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율(57.2%)은 전산업 평균(42.2%)과 제조업 평균(25.6%)보다 높게 분석됨

○ 관광산업이 100을 생산했을 때 국내에서 임금과 기업이윤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57.2% 창출되는 것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3〉 외화가득률과 부가가치율 비교

(단위 : %)

산업구분	외화가득률		부가가치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관광산업 평균	82.3	83.3	57.3	57.2
전산업 평균	71.4	73.1	41.9	42.2
제조업 평균	57.3	59.5	25.1	25.6
서비스업 평균	82.5	83.4	54.0	53.9

5.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관광지출의 적용

□ 국내 관광지출의 산업연관표 적용

○ 국내관광 지출의 항목 별 지출액을 산업연관표 상 관광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부문과 일치시켜 국내관광 지출액에 의한 관광산업

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

○ 2010년 기준 국내관광 총 지출액 16조 8,597억원의 관광 산업별 지출액 구성은 식음료(37.70%)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광교통(25.75%), 숙박업(11.50) 순으로 추정됨

〈표 4〉 국내 관광 산업별 지출액 추계

(단위 : %, 백만원)

구분	배분 비율 범위 (%)	국민국내관광지출	
		비율(%)	금액
소매업(관광쇼핑)	5.5 -7.5	6.87	1,158,266.5
식음료	30 - 42	37.70	6,356,134.8
숙박업	9.5 - 12.5	11.50	1,938,874.0
관광교통	21 -30	25.75	4,341,391.8
운수보조업	1.5 - 2.5	1.87	315,277.8
차량임대업	1.0 -2.5	1.25	210,747.2
여행업	9.5 -13.5	8.50	1,433,080.8
문화예술공연	1.5 -3.5	2.15	362,485.1
운동경기	1.5 -3	1.75	295,046.0
오락 및 유흥	2.0 -3.0	2.25	379,344.9
기타	0.0 - 1.0	0.41	69,125.1
합계	-	100.0	16,859,774.0

□ 외래객 지출의 산업연관표 적용

○ 외래객 지출의 산업연관표 적용은 한국관광위성계정(2010)기준 산업별 외래객 관광 지출액과 구성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업연관표상에서 분류된 관광산업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함

○ 2010년 기준 외래객 총 지출액 11조 9,342억원의 관광 산업별 외국인 관광지출액 구성은 소매업(34.50%), 숙박업(30.5%), 식음료(18%)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 관광 산업별 외국인 관광지출액 구성비

(단위 : %, 백만원)

구분	배분 비율 범위 (%)	외래객 관광지출	
		비율(%)	금액
소매업(관광쇼핑)	25 -46	34.50	4,117,306.6
식음료	15 -23	18.00	2,148,160.0
숙박업	20 - 41	30.50	3,639,937.7
관광교통	4.0 - 6.0	5.00	596,711.1
운수보조업	0	0.00	0.0
차량임대업	0.5-3.0	1.75	208,848.9
여행업	0.5 -1	0.80	95,473.8
문화예술공연	1-1.5	1.20	143,210.7
운동경기	0.5-1.5	1.00	119,342.2
오락 및 유흥	3.0-65.0	4.50	537,040.0
기타	2.0-4.0	2.75	328,191.1
합계	-	100.0	11,934,222.0

나. 분석결과

○ 2010년 국내관광객의 지출액 16조 8,597억 74백만원과 외국관광객의 지출액 11조 9,342억 22백만원, 총 28조 7,939억 96백만원을 관광산업 관련 유발승수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음

〈표 6〉 2010년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지출 파급효과 추정

(단위 : 백만원, 명, %)

파급효과	국내관광객 (1)	비율 (%)	외래관광객 (2)	비율 (%)	합계 (1+2)
1. 생산유발효과	30,131,440.2	58.9	21,012,856.1	41.1	51,144,296.3
2. 소득유발효과	5,362,949.8	57.4	3,986,587.3	42.6	9,349,537.1
3. 취업유발효과(명)	406,955	51.6	381,632	48.4	788,587
4. 고용유발효과(명)	211,713	57.3	157,877	42.7	369,590
5. 부가가치유발효과	12,394,519.5	55.4	9,988,405.1	44.6	22,382,924.6
6. 수입유발효과	4,465,254.5	69.6	1,945,817.0	30.4	6,411,071.5
7. 세수유발효과	1,833,577.3	61.3	1,159,436.7	38.7	2,993,014.0

○ 2010년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지출 생산유발효과는 총 51조 1,443억 원으로 국내관광객 30조 1,314억원, 외래관광객의 21조 129억원으로 구성됨

○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국내관광객이 40만 6,955명, 외래관광객이 38만 1,632명을 창출해 총 78만 8,587명의 취업유발승수효과를 나타냄

○ 고용유발효과의 경우도 국내 관광객이 21만 1,713명, 외래관광객이 15만 7,877명을 창출해 총 36만 9,590명의 고용을 유발함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국내관광객이 12조 3,945억원, 외래관광객이 9조 9,884억원으로 총 22조 3,829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

6. 시사점

○ 2009년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승수를 비교한 결과, 관광산업이 제조업보다 소득·고용·취업·부가가치·세수유발승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은 2008년, 2009년 모두 전산업 평균과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외화가득률을 나타냄.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 또한 2008년, 2009년 모두 전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제조업과 비교하여 약 1.4 배 높게 분석됨

○ 관광산업의 생산 · 소득 · 취업 · 고용 · 부가가치유발계수가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 및 관광수요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관광산업의 취업 · 고용유발계수를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에 제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광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신규고용창출에 유리한 산업임을 입증함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 범위 ····· 4
2. 연구 방법 ····· 4

제3절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 5
1.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도 ····· 5
2. 연구 기대 효과 ····· 6

제2장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7

제1절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 9

제2절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9

제3절 분석체계의 흐름 ····· 14

제3장 관광산업분류 및 자료처리 ····· 17

제1절 관광산업 분류 기준 ····· 19

제2절 산업연관표상 관광산업 분류 ····· 24

제3절 분석 자료 및 한계점 ····· 27

제4장 관광산업 승수효과 및 타산업 간 비교 분석 ····· 29

제1절 관광산업의 승수효과 분석 ····· 31
1. 생산소득승수효과 ····· 31
2. 고용·취업승수효과 ····· 33

3. 부가가치·수입승수효과 ····· 36
4. 세수승수효과 ····· 38
5. 전·후방연쇄효과 비교 ····· 40

제2절 관광산업 승수효과 변화 추이 ····· 43
1. 관광산업 승수효과 연도별 비교 ····· 43
2. 관광산업과 타산업간의 비교 ····· 46
3. 외화가득률 비교 분석 ····· 48
4. 부가가치율 비교 분석 ····· 50

제3절 시사점 ····· 52

제5장 관광지출의 경제파급효과 ····· 53

제1절 분석 체계 ····· 55

제2절 관광 지출 추계 및 적용 ····· 57
1. 국민 국내관광 지출 추계 및 적용 ····· 57
2. 외래객 관광 지출 추계 및 적용 ····· 60

제3절 관광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 63
1. 국내관광지출의 파급효과 ····· 63
2. 외래객 관광지출의 파급효과 ····· 68

제4절 소결 ····· 73

제6장 결 론 ····· 75

참고문헌 ····· 79

ABSTRACT ····· 81

표 차례

〈표 3-1〉 관광 산업 분류 ·····20
〈표 3-2〉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분류 ·····25
〈표 3-3〉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 및 통합 ·····26
〈표 4-1〉 생산 및 소득승수효과 ·····32
〈표 4-2〉 고용 및 취업승수효과 ·····35
〈표 4-3〉 부가가치 및 수입승수효과 ·····37
〈표 4-4〉 세수승수효과 ·····39
〈표 4-5〉 전 · 후방 연쇄효과 ·····42
〈표 4-6〉 생산 및 소득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43
〈표 4-7〉 고용 및 취업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44
〈표 4-8〉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및 수입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45
〈표 4-9〉 세수유발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46
〈표 4-10〉 관광산업과 타산업간의 비교 ·····47
〈표 4-11〉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외화가득률 및 산업별 순위 ·····49
〈표 4-12〉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및 산업별 순위 ·····51
〈표 5-1〉 국민 국내관광 지출 추계(2007년~2009년) ·····57
〈표 5-2〉 국내 여행 경험자 1회 평균 항목별 여행 지출액 구성비 ·····58
〈표 5-3〉 국내 관광 산업별 지출액 추계 ·····59
〈표 5-4〉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 ·····60
〈표 5-5〉 외국인 개별여행객 지출 경비(개인여행) ·····61
〈표 5-6〉 외국인 개별여행객 지출 경비 구성비 ·····62
〈표 5-7〉 관광 산업별 외국인 관광지출액 구성비 ·····62
〈표 5-8〉 국내 관광지출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 ·····64
〈표 5-9〉 국내 관광지출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65
〈표 5-10〉 국내 관광지출의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효과 ·····66
〈표 5-11〉 국내 관광지출의 세수유발효과 ·····67
〈표 5-12〉 외래객 관광지출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 ·····69
〈표 5-13〉 외래객 관광지출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70

〈표 5-14〉 외래객 관광지출의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효과 ·····71
〈표 5-15〉 외래객 관광지출의 세수유발효과 ·····72
〈표 5-16〉 2010년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지출 유발효과 추정 ·····74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도 ·····6
[그림 2-1] 경제파급효과 분석의 흐름도 ·····14
[그림 5-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체계 ·····56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민경제내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관광부문에서의 민간 지출 및 정부 재정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정책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임

○ 한국은행(2011)에서 제공하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은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측정, 관광관련 산업과 타산업과의 경제효과에 대한 비교평가 및 국내·외 관광객 지출의 경제파급효과분석 등은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며, 산업연관분석에 필요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경제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느 부문에서 생성되고, 생성된 것이 어느 부문으로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행렬 형태의 통계임

○ 관광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시의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발표 시점과 병행하여 관광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에서 매년 산업연관표를 발표함에 따라 최신의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됨

2. 연구 목적

○ '2009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승수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표상에서 분류한 관광산업과 타산업의 경제효과 비교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 기초 자료 제공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관광산업 경제효과 분석을 위해 '2009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1)를 활용하며, 분석시점은 2009년임

○ 내용적 범위

- 관광산업 분류 및 산업연관모형 분석체계 설정
- 관광산업 분류에 대한 관광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기준 비교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 생산·소득·고용·취업·부가가치·수입·세수 유발승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비교·분석
- 관광지출(국내관광객 및 외래관광객)에 의한 관광산업의 국민 경제기여효과분석 및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제언

2. 연구 방법

○ 산업연관표 상의 관광산업 분류를 위해 기존 연구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실시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기존 문헌으로 이강욱·류광훈(1999)의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강욱·최승묵(2003)의 '관광산업의 지역경제기여효과분석', 이강욱(2009)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강욱

(2010)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등이 있음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2009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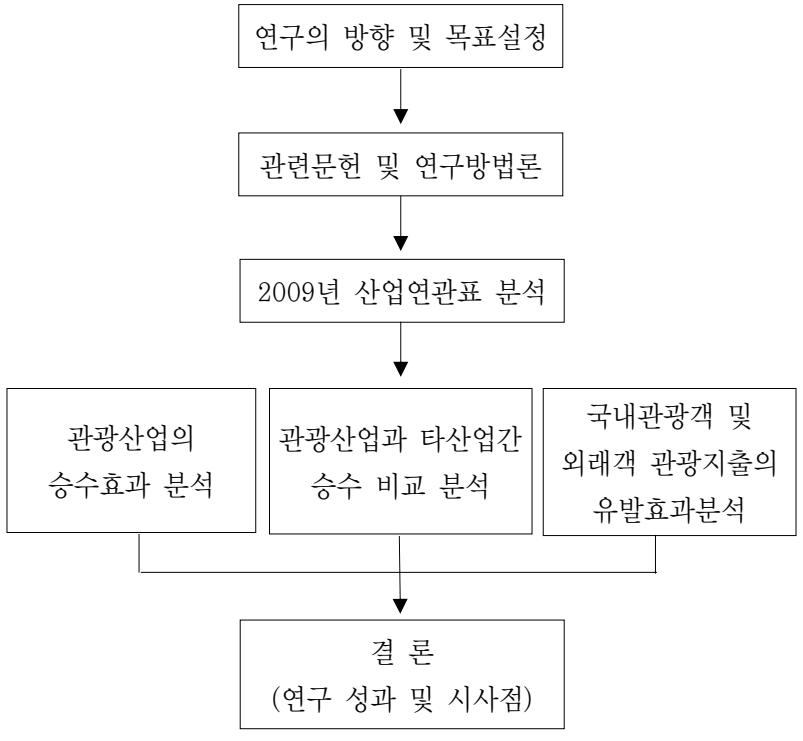
제3절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1.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도

○ 제2장은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및 산업연관표의 분석 방법론 검토, 산업연관분석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유발승수효과를 논하고, 제3장은 자료의 통합 분류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을 통한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분류 설정

○ 제4장은 분석체계에 따라 관광산업 관련 생산승수효과, 소득승수효과, 고용·취업승수효과, 부가가치 및 수입승수효과, 세수승수효과, 산업간 전후방연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제5장은 국내관광객과 외래관광객의 지출액을 추계하고, 산업연관표에서 국내 · 외 관광지출액에 의한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제6장 결론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도

2. 연구 기대 효과

○ 관광산업 구조 분석, 관광 투자의 타당성 검토의 기초자료 제공, 관광산업과 제조업, 수출산업의 비교 분석, 정부재정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산업간 정책적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

제 2 장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제1절 산업연관분석의 의의[1)]

○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제구조 분석, 생산 활동의 각종 파급효과 분석,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등에 있어 유용한 분석도구임

○ 산업연관분석은 일국의 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접근방법으로써 생산, 소득, 고용, 취업, 부가가치, 정부조세수입, 수입(import)에 대한 직·간접 유발승수효과를 측정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라 할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연계관계 분석을 통하여 관광산업과 타산업간 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

제2절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제품에 대한 1단위 외부 수요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소득, 고용 등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음(한국은행, 1987)

- 산업연관분석에서 제가정 및 한계점에 대한 논의는 한국은행(2010)을 참조할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발승수들은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구별하여 다부문승수(multi-sector multiplier) 혹은 레온티에프 승수(Leontief multiplier)라고 함

---

1) 제2장의 내용은 한국은행(2010), 이강욱(2010), 이강욱·류광훈(1999)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1) 생산유발계수(역행렬계수)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생산유발승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학적 방법인 역행렬을 이용해 구한다 하여 역행렬계수라고도 함(이강욱·류광훈, 1999)

○ 생산유발계수 도출과정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수식에서의 $(I-A)^{-1}$행렬을 생산유발계수 행렬이라 함

$AX+Y-M=X$

$X-AX=Y-M$

$(I-A)X=Y-M$

$X=(I-A)^{-1}(Y-M)$

단, A: 투입계수행렬, X: 총산출액 벡터, Y: 최종수요 벡터, M: 수입액 벡터, I: 항등행렬, $(I-A)^{-1}$: 생산유발계수

2)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의 발생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산업의 생산을 유발하고, 산업의 생산활동 또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유발함

○ 생산활동은 생산을 위한 투입물로써 국산품과 더불어 수입품의 중간재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수입을 유발함

○ 즉, 수입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라 국민 경제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와 수입을 나타내는 것임

○ 수입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A^{m}(I-A^{d})^{-1}$이 수입유발계수행렬임

$A^m X + Y^m = M$

$X = (I - A^d)^{-1} Y^d$를 대입,

$A^m (I - A^d)^{-1} Y^d + Y^m = M$

단, A^m는 수입중간투입계수행렬, A^d 국산투입계수행렬,

Y^m 수입최종수요 벡터 , Y^d 국산최종수요 벡터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hat{A}^v (I - A^d)^{-1}$이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임

$\hat{A}^v X = V$에

$(I - A^d)^{-1} Y^d = X$ 를 대입,

$\hat{A}^v (I - A^d)^{-1} Y^d = V$

단, $\hat{A}^v$는 부가가치합계 대각행렬, V 부가가치합계의 벡터

3) 노동계수와 고용유발계수

○ 노동유발계수 또는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인 노동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이때 노동유발계수에서 노동계수를 제한 나머지가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간접노동유발을 의미함

○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 다음과 같음

$$l = \frac{L}{X}$$

단, l은 노동계수, L은 투입노동량, X는 총산출액

○ 노동계수를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하여 노동유발계수를 도출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l\ (I-A^d)^{-1}$가 노동유발계수 행렬이 됨

$l=\frac{L}{X}$ 을 풀면 $L=l\cdot X$가 되며, 여기에

$X=\ (I-A^d)^{-1}Y^d$ 를 대입하여 풀면

$L=\ l\ (I-A^d)^{-1}Y^d$

4)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는 생산유발계수 행렬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 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임

□ 영향력계수

○ 영향력계수는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관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

○ 생산유발계수의 열(列)합을 생산유발계수의 열 합의 전산업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frac{\sum_i r_{ij}}{\frac{1}{n}\sum_j\sum_i r_{ij}}$$

단, r_{ij} 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의 각 요소이며, n은 부문 수

□ 감응도 계수

○ 감응도계수는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

○ 생산유발계수의 행(行)합을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의 전산업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음

$$\frac{\sum_j r_{ij}}{\frac{1}{n}\sum_i \sum_j r_{ij}}$$

단, r_{ij} 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의 각 요소이며, n은 부문 수

5) 관광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방법

○ 관광 지출액을 관광 산업부문의 최종수요로 삼아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유발계수행렬에 적용함으로써 직접효과 및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 관광부문 생산유발액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광관련 지출액을 최종수요에 대입하고 타 산업의 최종수요를 "0"으로 처리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의 열행렬을 곱하면 관광지출액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계산할 수 있음

$$(I-A)^{-1} \times C = O$$

단, $(I-A)^{-1}$: 생산유발계수행렬

C : 관광지출액이 대입된 최종수요 열행렬

O : 생산유발승수효과의 열행렬

○ 고용효과, 취업효과, 소득효과, 부가가치효과, 세수효과, 수입효과도 위의 수식에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세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의 행렬을 적용하면 관련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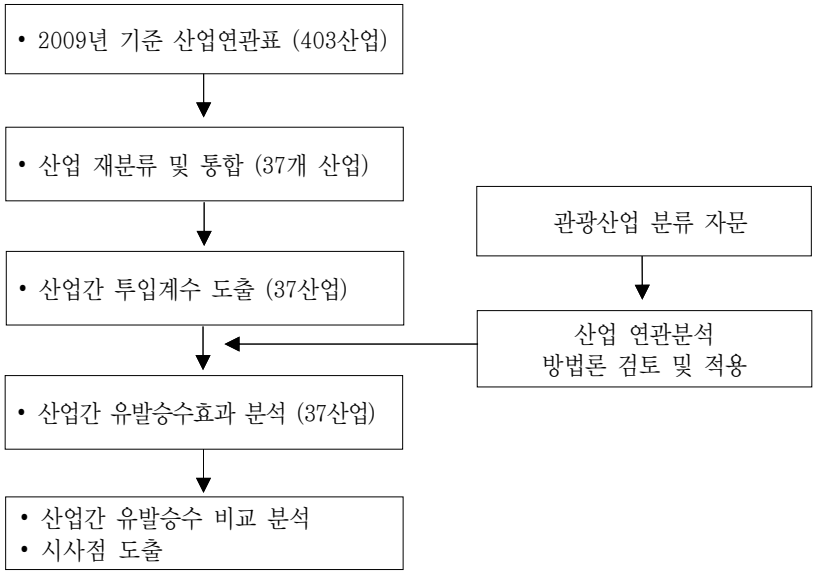
제3절 분석체계의 흐름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9년 기준 403부문으로 분류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구득하여 자료의 특성을 분석함

- 2010(이강욱) 연구내용과 동일하게 분석체계 설정함

○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의 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상의 관광산업을 국제기준 및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타산업 부문은 통합 분류함

○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관광산업 포함 총 37개 산업으로 재분류·통합하고 관광산업은 10개의 세부 관광산업으로 분류함(제3장 참조)



[그림 2-1] 경제파급효과 분석의 흐름도

○ 분류 통합 된 전국 산업의 중간 투입액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투입계수를 산출하여 레온티에프의 역행렬 계수를 구함

○ 역행렬 계수에서 도출된 생산유발계수 행·열을 바탕으로 소득유발 계수, 취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등을 도출함

○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관광산업의 특징을 분석하며 타산업과의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함

○ 내국인 및 외래객의 관광관련 지출액을 추정하여 내국인의 국민 국내관광에 지출에 의한 유발승수효과 분석 및 외국인의 관광지출에 의한 유발승수효과 분석

제 3 장 관광산업분류 및 자료처리

제1절 관광산업 분류 기준[2)]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 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이의 분류체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이강욱 외, 2003, p.7)

- Smith(1998)는 관광산업을 공급측면에서 관광산업의 분류를 제시함

○ 세계관광기구(UNWTO)의 관광산업분류 체계는 표준산업분류(SICT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 내에서 관광상품 분류를 위해 관광상품코드(TCP: Tourism Product Code)를 제시하고 있음(이강욱 외 2003, p.7)

○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UN-WTO 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ICTA: 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음(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7년 기준))

○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SICTA(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토대로 '2009년 전국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문(403부문)을 〈표 3-1〉과 같이 관광산업을 연계함(이강욱, 2009, pp.27-33)

---

2) 제3장의 연구내용 및 구성은 이강욱(2010)에 기초로 함

〈표 3-1〉 관광 산업 분류

관광 산업	산업연관표 (2009년)	KSIC	SICTA
숙박	326. 숙박	55. 숙박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9. 기타 숙박업 5590.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5510-1. Hotels and Motels with Restaurants 5510-2. Hotels and Motels without Restaurants 5510-3. Hostels and Refuges 5510-4. Camping Sites, including Caravan Sites 5510-5. Health-oriented Accommodation 5510-9. Other Provisions of Lodging, N.E.C.
식음료	323. 일반 음식점 324. 주점 325. 기타 음식점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1. 음식점업 5611. 일반 음식점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2. 기관구내식당업 56120. 기간구내식당업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업 5619. 기타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5621. 주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22.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5520-1. Bars and Other Drinking Places 5520-2. Full-service Restaurants 5520-3. Fast Food Restaurants and Cafeterias 5520-4. Institutional Food Services, Caters 5520-5. Food Kiosks, Vendors, Refreshment Stands 5520-6. Night Clubs and Dinner Theaters

〈표계속〉

관광산업	산업연관표(2009년)	KSIC	SICTA
여객운송	327. 철도여객운송	491. 철도운송업 4910. 철도운송업 49100. 철도운송업	6010-1. Interurban Rail PSGR Services 6010-2. Special Rail Tour Services
	329. 도로여객운송	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19. 기타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4923.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21-1. Scheduled Interurban Buses 6021-3. Scheduled Local and Metropolitan Transit Services 6021-4. Specialized Scheduled Vehicles 6022-1. Taxis 6022-2. Chauffeured Vehicles 6022-3. Local Tour Vehicles 6022-4. Charter Buses, Excursions (Same-Day Visits) 6022-5. Man or Animal-drawn Vehicles
	33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수상 여객 운송업 50203. 항만 내 운송업	6120-1. Inland Water PSGR Transport W/Accommodation 6120-2. Inland Water Local Tours 6120-3. Inland Water Taxis, Ferries
	333. 외항운송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6110-1. Cruise Ships
	334. 항공운송	51. 항공 운송업 511. 정기항공 운송업 5110. 정기 항공 운송업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512. 부정기 항공 운송업 5120. 부정기 항공 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6210-1. Scheduled Air PSGR Transport 6220-1. Non. Scheduled Air PSGR Transport
운수보조	335. 육상운수 보조서비스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1.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3-1. Other Supporting Land Transport Activities
	336. 수상운수 보조서비스	5292.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3-2. Other 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337. 항공운수 보조서비스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공항 운영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3-3. Other 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표계속〉

관광산업	산업연관표 (2009년)	KSIC	SICTA
차량 임대	368.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1. 운송장비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110. 자동차 임대업 6919.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110-2. Ship Rental W/Crew 622-2. Aircraft Rental Crew 7111-1. Automobile Rental 7111-2. Motorcycle Rental 7111-3. Recreational Vehicle, Camper Caravan Real 7113-1. Renting of Air Transport Equipment for Personal Use 7130-2. Rental of Horses 7130-3. Rental of Bicycles
여행업	371. 기타 사업 서비스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6304-1. Travel Agents 6304-2. Tour Operators, Packagers and Wholesalers 6304-3. Ticket Offices not a Part of Transport Companies 6304-4. Guides
운동·경기	391. 운동 및 경기 관련 서비스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1-1. Physical Fitness Facilities 9241-2. Operation of Sporting Facilities 9241-3. Activities Related to Recreational Hunting 9241-4. Other Sporting Activities, N.E.C. 9249-2. Activities Related to Recreational Fishing 9249-5. Operation of Ski Lifts
문화공연	386. 문화 서비스 (국공립)	90.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90. 기타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15. Operation of Ticket Agencies 9231. Library and Archive Activities 9232-1. Museums of All Kinds and Subjects 9232-2. Historical Sites and Buildings 9233-1.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 9233-2. Nature and Wildlife Preserves 9249-1. Operations of Recreation Parks and Beaches 9249-4. Operation of Recreational Fairs and Shows
	387. 문화서비스 (기타)		
	388. 영화제작및배급 389. 영화상영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9212. Motion Picture Projection
	390.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214. Dramatic Arts, Music and Other Art Activities 9215. Operation of Ticket Agencies

〈표계속〉

관광산업	산업연관표(2009년)	KSIC	SICTA
오락·유흥	392. 기타 오락 서비스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3. 수상 오락 서비스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4. 겜블링 및 베팅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9219-1. Amusement Parks 9219-2. Other Entertainment Activities, N.E.C. 9249-3. Gambling and Betting Operations, Casinos
소매	322. 소매	477. 연료소매업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4743.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2-1.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Textiles 5232-2.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Clothing 5232-3.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Footwear and Leather Goods 5232-4.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Luggage 5232-5. Other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in Specialized Stores 5239. Other Retail Sales in Specialized Stores 5239-3. Retail Sales, Camping and Hiking Equipment 5239-4. Retail Sales, Hunting and Fishing Equipment 5239-5. Photographic Sales and Services 5239-6. Retail Sales, Gift and Souvenir Shops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7년 기준)

제2절 산업연관표상 관광산업 분류

○ 한국은행(2011)의 '2009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는 통합대분류 28부문, 통합소분류 168부문, 기본부문 403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국제관광표준분류(SICTA)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분류한 것을 산업연관표의 403기본부문과 비교하여, 관광산업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조정함

○ 산업연관표에서 관광쇼핑은 '소매부문(322)'과 연계시키며, 식음료 부문은 '일반음식점(323)', '주점(324)', '기타음식점(325)', 숙박업은 '숙박(326)', 관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은 '철도여객운송(327)', '도로여객운송(329)',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332)', '외항운송(333)', '항공운송(334)', 운수보조업은 '육상운수보조서비스(335)', '수상운수보조서비스(336)', '항공운수보조서비스(337)'로 연계함

○ 차량임대업은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368)', 여행업은 '기타사업서비스(371)', 문화·예술 공연은 '문화서비스(386, 387)', '영화제작 및 배급(388)', '영화상영(389)',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390)', 운동경기는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391)', 오락 및 유흥은 '기타오락서비스(392)'로 연계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

〈표 3-2〉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분류

관광산업명칭	산업연관표 403부문 통합방식		비고
소매업(관광쇼핑) (322)	322	소매(○)	- 관광객의 관광기념품 구매, 농산물, 섬유가죽 제품 등 유통마진 등이 해당
식음료 (323-325)	323	일반음식점(○)	- 음식점, 유흥음식점, 주점업 등
	324	주점(○)	
	325	기타음식점(○)	
숙박업(326)	326	숙박(○)	- 관광숙박업 호텔업 및 여관업
여객운송 (327+329+332+333+334)	327	철도여객운송(○)	- 육상운송, 내항 운송, 외항운송
	328	철도화물운송	
	329	도로여객운송(○)	
	330	도로화물운송	
	331	택배	
	332	연안및내륙수상운송(○)	
	333	외항운송(○)	
	334	항공운송(○)	
운수보조업 (335-337)	335	육상운수보조서비스(○)	- 여객 자동차 터미널주차장 운영업
	33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337	항공운수보조서비스(○)	
	338	하역	
	339	보관및창고	
차량임대업 (368)	368	기계장비및용품임대(○)	- 관광 관련 자동차 임대 등
	369	청소및소독서비스	
	370	인력공급 및 알선	
여행업(371)	371	기타 사업서비스(○)	- 일반 및 국외여행업,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문화예술공연 (386-390)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 문화예술공연 (영화, 공연, 박물관, 연극, 음악)
	387	문화서비스(기타)(○)	
	388	영화제작 및 배급(○)	
	389	영화상영(○)	
	390	연극,음악및기타예술(○)	
운동경기(391)	391	운동및경기관련서비스(○)	- 경기장운영, 스포츠 서비스, 골프장/스키장
오락및유흥(392)	392	기타오락서비스(○)	- 게임장, 갬블링 등

주 1) 한국은행(2011)'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관광관련 산업 부문을 분류함
2) ○: 관광관련산업 특성으로 세분류 불필요.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으로 분류함

〈표 3-3〉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 및 통합

부문명칭 (37부문)			기본부문(403부문)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1-29
		2. 광산품	30-44
제조업		3. 음식료품	45-84
		4. 섬유 및 가죽제품	85-113
		5. 목재 및 종이제품	114-128
		6. 인쇄 및 복제	129-130
		7. 석유 및 석탄제품	131-141
		8. 화학제품	142-171
		9. 비금속광물제품	172-187
		10. 제1차 금속제품	188-208
		11. 금속제품	209-219
		12. 일반 기계	220-239
		13. 전기 및 전자기기	240-267
		14. 정밀기기	268-273
		15. 수송장비	274-287
		16. 기타제조업제품	288-297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298-304
		18. 건설	305-320
서비스업		19. 도매	321
		20. 운수 및 보관	328, 330, 331, 338-340
		21. 통신 및 방송	341-347
		22. 금융 및 보험	348-353
		23.부동산및사업서비스	354-367, 369, 370
		24. 공공행정 및 국방	372-373
		25. 교육 및 보건	374-383
		26. 사회및기타서비스	384-385, 393-400
		27. 기타	401-403
	관광 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322
		29. 식음료	323-325
		30. 숙박업	326
		31. 관광교통	327, 329, 332-334
		32. 운수보조업	335-337
		33. 차량임대업	368
		34. 여행업	371
		35. 문화예술공연	386-390
		36. 운동경기	391
		37. 오락 및 유흥	392

주 :한국은행(2011)'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관광관련 산업 부문을 분류함

제3절 분석 자료 및 한계점

□ 분석 자료

○ 자료 출처 및 형식

- 자료: 한국은행(2011), 2009년 산업연관표
- 부문 분류: 2009년 산업연관표 403부문 기준
- 가격평가: 생산자 가격표

○ 생산유발계수를 산출하는데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비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형수입형표의 국산거래표를 이용하는$(I-A^d)^{-1}$형이 있음(한국은행, 2010)

○ 본 연구에서는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유발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국산거래표로부터 도출된 $(I-A^d)^{-1}$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함(한국은행, 2010, p.9)

□ 자료의 통합 및 분류의 한계점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 분류와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권고하는 관광산업 분류와 일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은 403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고용표는 168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403부문 기준의 고용자수 및 취업지수를 배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이강욱, 2010, pp. 29-31)

- 예를 들어 168부문인 고용표에서 '도·소매(129)'를 403부문 기준으로 도매와 소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2009년 전국산업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도·소매종사자의 비율을 측정하여 고용자수를 배분함

○ 본 연구의 관광부문 분류는 한국은행에서 제공된 산업연관표의 자료를 활용하며, 403부문으로 자료 분리가 가능한 산업은 세부분류하여 분석함을 전제로 함

제 4 장 관광산업 승수효과 및 타산업 간 비교 분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절 관광산업의 승수효과 분석

1. 생산·소득승수효과[3)]

□ 생산유발승수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평균(1.6526)은 전체 산업평균(1.8826)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이 최종수요형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생산유발승수가 높은 산업은 기타(2.8279), 금속제품(2.4629), 일반기계(2.3775)순으로 분석됨(〈표 4-1〉참조)

○ 관광산업 분류 체계 내에서 식음료(2.1170)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공연(1.8078), 소매업(1.7232) 순으로 나타남

□ 소득유발승수

○ 관광산업 소득유발승수의 평균(0.3396)은 전산업의 평균(0.31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관광산업부문에서 직접효과의 평균(0.2373)도 전산업의 직접효과의 평균(0.1876)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유발승수는 교육 및 보건(0.610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행정 및 국방(0.5465), 문화예술공연(0.5191)순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 소득유발승수는 문화예술공연(0.5191), 여행업(0.4525), 숙박업(0.3622), 운동경기(0.3500)순으로 분석됨

---

3) 산업연관분석 용어 중 '승수효과'와 '유발계수'는 동의어로서 학술논문에서는 주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유발계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표 4-1〉 생산 및 소득승수효과

부문명칭		생산유발승수효과				소득유발승수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1.8778	18	1.4452	0.4327	0.1623	35	0.0662	0.0961
	2. 광산품	1.7497	22	1.4048	0.3449	0.3265	16	0.2239	0.1027
제조업	3. 음식료품	2.1362	7	1.5946	0.5416	0.1951	33	0.0647	0.1305
	4. 섬유 및 가죽제품	2.0549	13	1.5402	0.5147	0.2941	22	0.1423	0.1518
	5. 목재 및 종이제품	2.0056	15	1.5278	0.4778	0.2660	27	0.1267	0.1393
	6. 인쇄 및 복제	2.0829	11	1.5529	0.5299	0.3208	18	0.1574	0.1634
	7. 석유 및 석탄제품	1.1718	37	1.1016	0.0703	0.0338	37	0.0121	0.0217
	8. 화학제품	2.0434	14	1.5600	0.4833	0.2015	31	0.0839	0.1176
	9. 비금속광물제품	1.9441	16	1.5265	0.4176	0.2545	29	0.1166	0.1380
	10. 제1차 금속제품	2.3603	4	1.6264	0.7339	0.1782	34	0.0551	0.1230
	11. 금속제품	2.4629	2	1.6556	0.8073	0.2913	23	0.1376	0.1537
	12. 일반 기계	2.3775	3	1.6328	0.7447	0.3215	17	0.1509	0.1705
	13. 전기 및 전자기기	1.9253	17	1.4814	0.4439	0.2006	32	0.0832	0.1174
	14. 정밀기기	2.1067	10	1.5694	0.5374	0.2955	21	0.1430	0.1525
	15. 수송장비	2.2977	5	1.5994	0.6984	0.2680	26	0.1100	0.1580
	16. 기타제조업제품	2.2481	6	1.6055	0.6427	0.3339	13	0.1674	0.1665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1.4836	35	1.3038	0.1798	0.1537	36	0.0943	0.0594
	18. 건설	2.1337	8	1.5510	0.5827	0.3878	6	0.2422	0.1457
서비스업	19. 도매	1.6592	27	1.3665	0.2927	0.3703	7	0.2573	0.1130
	20. 운수 및 보관	1.8062	21	1.5077	0.2985	0.3634	8	0.2613	0.1021
	21. 통신 및 방송	1.8724	19	1.4889	0.3835	0.3285	15	0.1686	0.1599
	22. 금융 및 보험	1.7346	23	1.4161	0.3184	0.3525	10	0.2128	0.1397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542	33	1.2920	0.2622	0.3314	14	0.2380	0.0934
	24. 공공행정 및 국방	1.5612	32	1.2740	0.2871	0.5465	2	0.4629	0.0836
	25. 교육 및 보건	1.5904	29	1.3054	0.2851	0.6103	1	0.5240	0.0863
	26. 사회및기타서비스	2.0616	12	1.5296	0.5320	0.4157	5	0.2646	0.1511
	27. 기타	2.8279	1	1.9043	0.9236	0.2778	25	0.0000	0.2778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1.7232	24	1.4059	0.3173	0.3424	12	0.2185	0.1239
	29. 식음료	2.1170	9	1.5742	0.5427	0.3055	19	0.1738	0.1317
	30. 숙박업	1.5668	31	1.3170	0.2499	0.3622	9	0.2780	0.0842
	31. 관광교통	1.5120	34	1.3344	0.1776	0.2564	28	0.1913	0.0650
	32. 운수보조업	1.2844	36	1.1571	0.1273	0.3046	20	0.2617	0.0429
	33. 차량임대업	1.5686	30	1.3235	0.2452	0.2177	30	0.1209	0.0968
	34. 여행업	1.6615	26	1.3504	0.3111	0.4525	4	0.3471	0.1054
	35. 문화예술공연	1.8078	20	1.4483	0.3595	0.5191	3	0.3530	0.1661
	36. 운동경기	1.6092	28	1.3384	0.2708	0.3500	11	0.2533	0.0967
	37. 오락 및 유흥	1.6752	25	1.3466	0.3285	0.2852	24	0.1753	0.1099
관광산업 평균(28-37)		1.6526		1.3596	0.2930	0.3396		0.2373	0.1023
전산업 평균(1-37)		1.8826		1.4584	0.4242	0.3102		0.1876	0.1226
제조업 평균(3-16)		2.0870		1.5410	0.5460	0.2468		0.1108	0.1360
서비스업 평균(19-37)		1.7470		1.4042	0.3428	0.3680		0.2507	0.1173

2. 고용·취업승수효과

○ 노동수요는 취업자(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고용자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 노동유발승수는 노동승수와 생산유발승수를 기초로 산출되며, 노동승수는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유발승수와 피용자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승수로 구분됨

○ 즉, 노동유발승수는 취업유발승수와 고용승수로 구분되며, 취업유발승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하며, 고용유발승수는 피용자(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출됨

- 관광관련 전체 일자리수 (근로자수)의 유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유발승수(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며, 순수 임금근로자의 파급효과를 위한 분석은 고용유발승수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 고용유발승수

○ 관광부문의 고용유발승수(0.0120)는 전산업 평균(0.0098)보다 상회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임과 동시에 신규고용창출에 유리한 산업임을 증명함(2008년 분석결과는 제4장 제2절에 요약되어있음)

○ 고용유발승수는 여행업(0.0203)이 가장 높고,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0.0163), 도매(0.0161)순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 분류 체계 내에서도 역시 여행업(0.0203)이 가장 높았으며, 차량임대업(0.0157), 숙박업(0.0148), 식음료(0.0145) 순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의 직접효과(0.0088)도 전산업 직접효과의 평균(0.0060)보다 높게 분석됨

□ 취업유발승수

○ 관광산업 취업유발승수(0.0209)가 전산업의 평균(0.0152)보다 높게 분석됨. 또한 관광산업 평균 직접효과는 0.0159이며, 전산업의 직접효과(0.0093)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관광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타산업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함

○ 취업유발승수는 소매업(0.045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수산품(0.0404)과 식음료(0.0322) 순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 분류체계 내에서의 취업유발승수는 소매업(0.0459)이 가장 높았으며, 식음료(0.0322), 숙박업(0.0249) 순으로 분석됨

〈표 4-2〉 고용 및 취업승수효과

부문명칭		고용유발승수효과				취업유발승수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0.0070	30	0.0037	0.0033	0.0404	2	0.0326	0.0078
	2. 광산품	0.0074	25	0.0042	0.0033	0.0092	29	0.0045	0.0047
제조업	3. 음식료품	0.0070	29	0.0022	0.0048	0.0192	9	0.0030	0.0163
	4. 섬유 및 가죽제품	0.0108	15	0.0057	0.0051	0.0136	18	0.0069	0.0068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76	24	0.0034	0.0042	0.0096	28	0.0039	0.0057
	6. 인쇄 및 복제	0.0121	11	0.0068	0.0053	0.0162	13	0.0091	0.0071
	7. 석유 및 석탄제품	0.0008	37	0.0002	0.0006	0.0010	37	0.0002	0.0008
	8. 화학제품	0.0053	33	0.0019	0.0034	0.0063	33	0.0020	0.0044
	9. 비금속광물제품	0.0071	28	0.0030	0.0041	0.0087	30	0.0032	0.0055
	10. 제1차 금속제품	0.0038	35	0.0007	0.0030	0.0045	34	0.0008	0.0037
	11. 금속제품	0.0085	22	0.0043	0.0042	0.0103	24	0.0050	0.0052
	12. 일반 기계	0.0084	23	0.0036	0.0048	0.0098	27	0.0039	0.0059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055	32	0.0021	0.0034	0.0065	32	0.0022	0.0043
	14. 정밀기기	0.0099	17	0.0053	0.0046	0.0116	22	0.0056	0.0060
	15. 수송장비	0.0066	31	0.0023	0.0043	0.0078	31	0.0024	0.0054
	16. 기타제조업제품	0.0100	16	0.0049	0.0051	0.0132	19	0.0063	0.0069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0.0025	36	0.0011	0.0014	0.0029	36	0.0011	0.0018
	18. 건설	0.0125	10	0.0083	0.0042	0.0140	17	0.0086	0.0054
서비스업	19. 도매	0.0161	3	0.0126	0.0035	0.0152	16	0.0103	0.0049
	20. 운수 및 보관	0.0134	8	0.0107	0.0027	0.0196	8	0.0159	0.0037
	21. 통신 및 방송	0.0074	26	0.0026	0.0047	0.0120	21	0.0027	0.0093
	22. 금융 및 보험	0.0090	21	0.0052	0.0038	0.0100	26	0.0052	0.0048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095	19	0.0067	0.0028	0.0112	23	0.0073	0.0039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115	13	0.0089	0.0027	0.0127	20	0.0089	0.0039
	25. 교육 및 보건	0.0155	5	0.0129	0.0026	0.0179	11	0.0141	0.0037
	26. 사회및기타서비스	0.0163	2	0.0117	0.0046	0.0253	4	0.0186	0.0067
	27. 기타	0.0113	14	0.0000	0.0113	0.0234	6	0.0000	0.0234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0.0125	9	0.0089	0.0036	0.0459	1	0.0409	0.0050
	29. 식음료	0.0145	7	0.0099	0.0046	0.0322	3	0.0205	0.0117
	30. 숙박업	0.0148	6	0.0124	0.0024	0.0249	5	0.0215	0.0034
	31. 관광교통	0.0072	27	0.0052	0.0020	0.0100	25	0.0075	0.0025
	32. 운수보조업	0.0038	34	0.0025	0.0013	0.0044	35	0.0026	0.0019
	33. 차량임대업	0.0157	4	0.0121	0.0037	0.0177	12	0.0128	0.0049
	34. 여행업	0.0203	1	0.0171	0.0032	0.0229	7	0.0182	0.0047
	35. 문화예술공연	0.0117	12	0.0070	0.0047	0.0186	10	0.0120	0.0067
	36. 운동경기	0.0097	18	0.0068	0.0028	0.0160	15	0.0121	0.0039
	37. 오락 및 유흥	0.0095	20	0.0061	0.0033	0.0161	14	0.0108	0.0053
관광산업 평균(28-37)		0.0120		0.0088	0.0032	0.0209		0.0159	0.0050
전산업 평균(1-37)		0.0098		0.0060	0.0038	0.0152		0.0093	0.0059
제조업 평균(3-16)		0.0074		0.0033	0.0041	0.0099		0.0039	0.0060
서비스업 평균(19-37)		0.0121		0.0084	0.0037	0.0187		0.0127	0.0060

3. 부가가치·수입승수효과

□ 부가가치유발승수

○ 관광산업부문의 부가가치유발승수(0.8331)는 전산업의 평균(0.73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교통(0.4674)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전산업의 평균보다 높게 분석됨. 이는 타 산업에 비해 관광산업이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가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유발승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운수보조업(0.9416)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0.9126), 오락 및 유흥(0.912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9096)순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부문에서도 역시 운수보조업(0.9416)이 가장 높았으며, 오락 및 유흥(0.9122), 운동경기(0.8990), 여행업(0,8943)순으로 높게 분석됨

□ 수입유발승수

○ 관광산업부문의 수입유발승수(0.1669)는 전산업의 평균(0.2692)과 제조업 평균(0.405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관광교통(0.5326)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부문이 모두 전산업 평균(0.2692)보다 낮게 분석됨. 이는 관광산업부문이 수입의존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 수입유발승수는 석유 및 석탄제품(0.7401)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산업 평균(0.2692)의 2.7배 이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분석됨

○ 다음으로 수입유발승수가 높은 산업은 전력, 가스및수도(0.5472), 제1차 금속제품(0.5329), 관광교통(0.5326)순으로 분석됨

〈표 4-3〉 부가가치 및 수입승수효과

부문명칭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				수입승수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0.8204	16	0.5215	0.2989	0.1796	22	0.0333	0.1463
	2. 광산품	0.8359	14	0.5851	0.2508	0.1641	24	0.0101	0.1540
제조업	3. 음식료품	0.7096	22	0.2543	0.4553	0.2904	16	0.1511	0.1393
	4. 섬유 및 가죽제품	0.6556	25	0.2982	0.3575	0.3444	13	0.1616	0.1828
	5. 목재 및 종이제품	0.6064	30	0.2745	0.3319	0.3936	8	0.1977	0.1959
	6. 인쇄 및 복제	0.7727	19	0.3894	0.3834	0.2273	19	0.0577	0.1696
	7. 석유 및 석탄제품	0.2599	37	0.2030	0.0569	0.7401	1	0.6954	0.0447
	8. 화학제품	0.5034	33	0.2006	0.3028	0.4966	5	0.2393	0.2573
	9. 비금속광물제품	0.6465	27	0.3037	0.3428	0.3535	11	0.1698	0.1837
	10. 제1차 금속제품	0.4671	35	0.1480	0.3191	0.5329	3	0.2256	0.3073
	11. 금속제품	0.6426	28	0.2702	0.3723	0.3574	10	0.0742	0.2833
	12. 일반 기계	0.6553	26	0.2621	0.3932	0.3447	12	0.1051	0.2396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040	32	0.2105	0.2935	0.4960	6	0.3081	0.1879
	14. 정밀기기	0.6271	29	0.2552	0.3719	0.3729	9	0.1754	0.1975
	15. 수송장비	0.6059	31	0.2376	0.3683	0.3941	7	0.1631	0.2310
	16. 기타제조업제품	0.6688	24	0.2817	0.3870	0.3312	14	0.1128	0.2184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0.4528	36	0.2901	0.1627	0.5472	2	0.4061	0.1411
	18. 건설	0.7534	21	0.4010	0.3524	0.2466	17	0.0480	0.1986
서비스업	19. 도매	0.8624	11	0.5880	0.2743	0.1376	27	0.0454	0.0922
	20. 운수 및 보관	0.7558	20	0.4691	0.2867	0.2442	18	0.0232	0.2210
	21. 통신 및 방송	0.8396	13	0.4419	0.3977	0.1604	25	0.0692	0.0912
	22. 금융 및 보험	0.9126	2	0.5549	0.3576	0.0874	36	0.0289	0.0585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9096	4	0.6840	0.2256	0.0904	34	0.0240	0.0664
	24. 공공행정 및 국방	0.8698	9	0.6721	0.1977	0.1302	29	0.0539	0.0763
	25. 교육 및 보건	0.8692	10	0.6634	0.2057	0.1308	28	0.0312	0.0996
	26. 사회및기타서비스	0.8105	17	0.4445	0.3660	0.1895	21	0.0258	0.1636
	27. 기타	0.6923	23	0.0000	0.6923	0.3077	15	0.0957	0.2120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0.8879	7	0.5793	0.3086	0.1121	31	0.0148	0.0974
	29. 식음료	0.7738	18	0.3521	0.4216	0.2262	20	0.0737	0.1526
	30. 숙박업	0.8757	8	0.6702	0.2055	0.1243	30	0.0129	0.1115
	31. 관광교통	0.4674	34	0.2800	0.1874	0.5326	4	0.3856	0.1470
	32. 운수보조업	0.9416	1	0.8347	0.1069	0.0584	37	0.0082	0.0502
	33. 차량임대업	0.8250	15	0.5728	0.2522	0.1750	23	0.1037	0.0713
	34. 여행업	0.8943	6	0.6310	0.2633	0.1057	32	0.0186	0.0870
	35. 문화예술공연	0.8538	12	0.5030	0.3508	0.1462	26	0.0487	0.0975
	36. 운동경기	0.8990	5	0.6516	0.2474	0.1010	33	0.0100	0.0910
	37. 오락 및 유흥	0.9122	3	0.6404	0.2718	0.0878	35	0.0130	0.0748
관광산업 평균(28-37)		0.8331		0.5715	0.2616	0.1669		0.0689	0.0980
전산업 평균(1-37)		0.7308		0.4222	0.3086	0.2692		0.1195	0.1497
제조업 평균(3-16)		0.5946		0.2564	0.3383	0.4054		0.2026	0.2027
서비스업 평균(19-37)		0.8343		0.5386	0.2957	0.1657		0.0572	0.1085

4. 세수승수효과

□ 세수유발승수

○ 관광부문의 세수유발승수의 평균(0.1044)은 전산업의 평균(0.0809)보다 높게 분석됨. 이는 관광산업의 세수유발승수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세수유발승수효과는 오락 및 유흥(0.28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동경기(0.1861), 석유 및 석탄제품(0.1793), 음식료품(0.1687), 식음료(0.1624)순으로 분석됨

○ 관광부문에서의 세수유발승수효과는 오락 및 유흥(0.2898), 운동경기(0.1861), 식음료(0.1624)순으로 높게 분석됨. 관광부문의 오락 및 유흥업의 세수유발승수가 가장 높은 것은 카지노, 경마 등과 같이 특권산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됨

○ 직접효과부문에서는 관광산업 평균(0.0705)이 전산업 평균(0.0442)보다 1.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4〉 세수승수효과

부문명칭			세수유발승수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0.0670	17	0.0165	0.0504
		2. 광산품	0.0439	30	0.0069	0.0370
제조업		3. 음식료품	0.1687	4	0.1182	0.0505
		4. 섬유 및 가죽제품	0.0728	16	0.0339	0.0389
		5. 목재 및 종이제품	0.0595	23	0.0246	0.0350
		6. 인쇄 및 복제	0.0984	9	0.0569	0.0415
		7. 석유 및 석탄제품	0.1793	3	0.1695	0.0098
		8. 화학제품	0.0574	25	0.0138	0.0437
		9. 비금속광물제품	0.0464	29	0.0074	0.0390
		10. 제1차 금속제품	0.0316	35	0.0023	0.0292
		11. 금속제품	0.0375	32	0.0076	0.0299
		12. 일반 기계	0.0482	27	0.0163	0.0319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343	34	0.0100	0.0243
		14. 정밀기기	0.0639	18	0.0304	0.0335
		15. 수송장비	0.0617	20	0.0274	0.0342
		16. 기타제조업제품	0.0756	14	0.0390	0.0366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0.0577	24	0.0339	0.0238
		18. 건설	0.0952	10	0.0646	0.0306
서비스업		19. 도매	0.0422	31	0.0099	0.0323
		20. 운수 및 보관	0.0736	15	0.0170	0.0567
		21. 통신 및 방송	0.0816	13	0.0452	0.0364
		22. 금융 및 보험	0.0831	12	0.0471	0.0360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990	7	0.0737	0.0254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234	37	0.0000	0.0233
		25. 교육 및 보건	0.0268	36	0.0026	0.0243
		26. 사회및기타서비스	0.0985	8	0.0557	0.0428
		27. 기타	0.1199	6	0.0000	0.1199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0.0468	28	0.0118	0.0350
		29. 식음료	0.1624	5	0.0915	0.0708
		30. 숙박업	0.0934	11	0.0685	0.0249
		31. 관광교통	0.0608	21	0.0236	0.0372
		32. 운수보조업	0.0351	33	0.0200	0.0150
		33. 차량임대업	0.0484	26	0.0246	0.0238
		34. 여행업	0.0597	22	0.0291	0.0306
		35. 문화예술공연	0.0621	19	0.0269	0.0352
		36. 운동경기	0.1861	2	0.1549	0.0311
		37. 오락 및 유흥	0.2898	1	0.2540	0.0358
관광산업 평균(28-37)			0.1044		0.0705	0.0340
전산업 평균(1-37)			0.0809		0.0442	0.0367
제조업 평균(3-16)			0.0740		0.0398	0.0341
서비스업 평균(19-37)			0.0891		0.0503	0.0388

5. 전·후방연쇄효과 비교

○ 전·후방연관효과는 주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이용하여 생산유발승수효과의 산업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임

□ 영향력계수 비교

○ 영향력계수는 한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해 단위량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 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타나내는 것으로, 산출승수가 클수록 영향력 계수도 크게 분석됨

○ 후방연관효과(영향력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며, 반대로 영향력계수가'1' 보다 작은 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함

○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의 평균(0.8778)은 제조업 평균(1.1086)보다 낮게 분석되었으며, 식음료(1.1245)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부문은 1보다 낮게 분석됨

○ 영향력 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기타(1.5021)이고, 다음으로 금속제품(1.3082), 일반기계(1.2629), 제 1차 금속제품(1.2538)순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최종 수요형 산업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생산에 따른 산업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됨

□ 감응도계수 비교

○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

생할 때 특정 산업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전방연관효과를 의미함. 즉, 타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써 투입되는 상대적 크기를 의미함

○ 전방연관효과(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다른 산업 제품들의 최종 수요가 1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산업이며, 감응도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생산이 1단위보다 작게 증가하는 산업을 의미함

○ 관광산업의 감응도계수(0.7135)는 제조업 평균(1.1607)보다 낮게 분석되었으며 식음료(1.1569)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1보다 낮게 나타남

○ 감응도계수가 높은 산업은 제1차 금속제품(2.2603), 화학제품(2.148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1272), 석유 및 석탄제품(1.5795)로 분석됨

○ 최종수요형 산업으로 간주되는 관광산업의 감응도 계수는 타 산업에 비해 낮게 분석됨

〈표 4-5〉 전·후방 연쇄효과

부문명칭			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	
			총효과		총효과	
				순위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0.9975	18	1.0473	14
		2. 광산품	0.9294	22	0.5997	33
제조업		3. 음식료품	1.1347	7	1.2795	7
		4. 섬유 및 가죽제품	1.0915	13	0.8552	20
		5. 목재 및 종이제품	1.0654	15	1.1968	9
		6. 인쇄 및 복제	1.1064	11	0.7254	22
		7. 석유 및 석탄제품	0.6225	37	1.5795	4
		8. 화학제품	1.0854	14	2.1486	2
		9. 비금속광물제품	1.0327	16	0.7750	21
		10. 제1차 금속제품	1.2538	4	2.2603	1
		11. 금속제품	1.3082	2	1.0326	15
		12. 일반 기계	1.2629	3	0.9347	18
		13. 전기 및 전자기기	1.0227	17	1.1236	12
		14. 정밀기기	1.1191	10	0.6313	31
		15. 수송장비	1.2205	5	1.0161	17
		16. 기타제조업제품	1.1942	6	0.6916	26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0.7881	35	1.3247	6
		18. 건설	1.1334	8	0.6382	29
서비스업		19. 도매	0.8813	27	1.1307	11
		20. 운수 및 보관	0.9594	21	1.0254	16
		21. 통신 및 방송	0.9946	19	1.0761	13
		22. 금융 및 보험	0.9214	23	1.4766	5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8256	33	2.1272	3
		24. 공공행정 및 국방	0.8293	32	0.5500	36
		25. 교육 및 보건	0.8448	29	0.6897	27
		26. 사회및기타서비스	1.0951	12	0.6896	28
		27. 기타	1.5021	1	1.2398	8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0.9153	24	0.8760	19
		29. 식음료	1.1245	9	1.1569	10
		30. 숙박업	0.8323	31	0.5711	35
		31. 관광교통	0.8032	34	0.7131	24
		32. 운수보조업	0.6822	36	0.6357	30
		33. 차량임대업	0.8332	30	0.6125	32
		34. 여행업	0.8826	26	0.7081	25
		35. 문화예술공연	0.9603	20	0.7214	23
		36. 운동경기	0.8548	28	0.5991	34
		37. 오락 및 유흥	0.8898	25	0.5409	37
관광산업 평균(28-37)			0.8778		0.7135	
제조업 평균(3-16)			1.1086		1.1607	
서비스업 평균(19-37)			0.9280		0.9021	

제2절 관광산업 승수효과 변화 추이

1. 관광산업 승수효과 연도별 비교

□ 생산 및 소득승수효과

○ 2009년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관광산업 평균 기준 2008년에 비해 0.0187 증가하였으며, 소득유발승수효과는 0.0028 증가하였음

○ 생산유발승수를 세부적으로 볼 때 차량임대업(0.0467), 식음료(0.0422), 관광교통(0.4000) 부문에서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유발승수효과의 변화 폭은 관광교통(0.0434)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운수보조업(-0.0295), 운동경기(0.0074), 식음료(0.0064) 순으로 나타남

〈표 4-6〉 생산 및 소득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구 분	생산유발승수효과			소득유발승수효과		
	2009년 (A)	2008년 (B)	차이 (A-B)	**2009년 (A)**	2008년 (B)	차이 (A-B)
28. 소매업(관광쇼핑)	1.7232	1.6905	0.0327	0.3424	0.3480	-0.0056
29. 식음료	2.1170	2.0748	0.0422	0.3055	0.2991	0.0064
30. 숙박업	1.5668	1.5535	0.0133	0.3622	0.3628	-0.0006
31. 관광교통	1.5120	1.4720	0.0400	0.2564	0.2130	0.0434
32. 운수보조업	1.2844	1.2856	-0.0012	0.3046	0.3341	-0.0295
33. 차량임대업	1.5686	1.5219	0.0467	0.2177	0.2122	0.0055
34. 여행업	1.6615	1.6271	0.0344	0.4525	0.4528	-0.0003
35. 문화예술공연	1.8078	1.8356	-0.0278	0.5191	0.5226	-0.0035
36. 운동경기	1.6092	1.6187	-0.0095	0.3500	0.3426	0.0074
37. 오락 및 유흥	1.6752	1.6593	0.0159	0.2852	0.2805	0.0047
관광산업 평균	1.6526	1.6339	0.0187	0.3396	0.3368	0.0028

□ 고용 및 취업승수효과

○ 관광산업 평균 기준으로 고용유발승수는 2008년보다 0.0013 증가하였으며, 차량임대업(0.0120), 소매업(-0.0058), 여행업(0.0047) 순으로 분석되었고, 차량임대업(0.0120)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모두의 0.01이하로 변화함

○ 취업유발승수는 관광산업 평균 기준으로 2008년보다 0.0028 증가하였으며, 고용유발승수와 마찬가지로 차량임대업(0.0128), 소매업(0.0098), 여행업(0.00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차량임대업(0.0128)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0.01이하로 변화함

〈표 4-7〉 고용 및 취업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구 분	고용유발승수효과			취업유발승수효과		
	2009년 (A)	2008년 (B)	차이 (A-B)	**2009년 (A)**	2008년 (B)	차이 (A-B)
28. 소매업(관광쇼핑)	0.0125	0.0183	-0.0058	0.0459	0.0361	0.0098
29. 식음료	0.0145	0.0148	-0.0003	0.0322	0.0334	-0.0012
30. 숙박업	0.0148	0.0141	0.0007	0.0249	0.0244	0.0005
31. 관광교통	0.0072	0.0062	0.0010	0.0100	0.0100	0
32. 운수보조업	0.0038	0.0039	-0.0001	0.0044	0.0046	-0.0002
33. 차량임대업	0.0157	0.0037	0.0120	0.0177	0.0049	0.0128
34. 여행업	0.0203	0.0156	0.0047	0.0229	0.0178	0.0051
35. 문화예술공연	0.0117	0.0111	0.0006	0.0186	0.0175	0.0011
36. 운동경기	0.0097	0.0093	0.0004	0.0160	0.0153	0.0007
37. 오락 및 유흥	0.0095	0.0103	-0.0008	0.0161	0.0175	-0.0014
관광산업 평균	0.0120	0.0107	0.0013	0.0209	0.0181	0.0028

□ 부가가치 및 수입승수효과

○ 2009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관광산업 평균 기준으로 2008년보다 0.0102 증가하였으며, 관광교통(0.0470), 차량임대업(0.0239), 문화예술공연(0.0116) 순으로 나타남

○ 2009년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는 관광산업 평균 기준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평균 -0.0102 감소하였고, 관광교통(-0.0470), 차량임대업(-0.0239), 문화예술공연(-0.0116) 순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는 여행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2008년보다 증가한 값으로 분석되었고, 반대로 수입유발승수효과는 여행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2008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4-8〉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및 수입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구 분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			수입유발승수효과		
	2009년 (A)	2008년 (B)	차이 (A-B)	**2009년 (A)**	2008년 (B)	차이 (A-B)
28. 소매업(관광쇼핑)	0.8879	0.8859	0.0020	0.1121	0.1141	-0.0020
29. 식음료	0.7738	0.7712	0.0026	0.2262	0.2288	-0.0026
30. 숙박업	0.8757	0.8699	0.0058	0.1243	0.1301	-0.0058
31. 관광교통	0.4674	0.4204	0.0470	0.5326	0.5796	-0.0470
32. 운수보조업	0.9416	0.9389	0.0027	0.0584	0.0611	-0.0027
33. 차량임대업	0.8250	0.8011	0.0239	0.1750	0.1989	-0.0239
34. 여행업	0.8943	0.8971	-0.0028	0.1057	0.1029	0.0028
35. 문화예술공연	0.8538	0.8422	0.0116	0.1462	0.1578	-0.0116
36. 운동경기	0.8990	0.8907	0.0083	0.1010	0.1093	-0.0083
37. 오락 및 유흥	0.9122	0.9115	0.0007	0.0878	0.0885	-0.0007
관광산업 평균	0.8331	0.8229	0.0102	0.1669	0.1771	-0.0102

□ 세수승수효과

○ 관광산업 평균 기준으로 세수유발승수는 2008년보다 0.0018 감소하여 2009년의 세수유발승수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세수승수효과를 세부적으로 볼 때 숙박업(-0.0203) 부문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으며, 다음으로 운동경기(-0.0162), 관광교통(0.0116), 오락 및 유흥(-0.0018) 순으로 나타남

〈표 4-9〉 세수유발승수효과의 연도별 비교

구 분	세수유발승수효과		
	2009년 (A)	2008년 (B)	차이 (A-B)
28. 소매업(관광쇼핑)	0.0468	0.0439	0.0029
29. 식음료	0.1624	0.1677	-0.0053
30. 숙박업	0.0934	0.1137	-0.0203
31. 관광교통	0.0608	0.0492	0.0116
32. 운수보조업	0.0351	0.0276	0.0075
33. 차량임대업	0.0484	0.0509	-0.0025
34. 여행업	0.0597	0.0517	0.0080
35. 문화예술공연	0.0621	0.0549	0.0072
36. 운동경기	0.1861	0.2023	-0.0162
37. 오락 및 유흥	0.2898	0.3009	-0.0111
관광산업 평균	0.1044	0.1063	-0.0018

2. 관광산업과 타산업간의 비교

○ 2009년 생산유발승수에서 제조업종의 평균 승수(2.0870)가 관광산업 승수의 평균(1.652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소득유발승수(0.3396)는 전산업 평균(0.3102)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제조업(0.246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고용유발승수는 주요 제조업보다 1.74배

높은 유발승수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유발승수의 경우는 1.1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승수와 고용유발승수는 각각 2.7514, 2.1578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우 각각 0.4654, 0.4627 증가함

○ 2009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제조업과 비교하여 약 1.4 배 높게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는 전산업 평균,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수유발승수는 전삽업 평균,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10〉 관광산업과 타산업간의 비교

구 분		2009년 (A)	2008년 (B)	차이(A-B)
생산유발승수	관광산업	1.6526	1.6339	0.0187
	전산업	1.8826	1.8676	0.0149
	제조업	2.0870	2.0686	0.0183
소득유발승수	관광산업	0.3396	0.3368	0.0028
	전산업	0.3102	0.3085	0.0017
	제조업	0.2468	0.2444	0.0024
취업유발승수 (명/10억원)	관광산업	20.8846	18.1333	2.7514
	전산업	15.1576	14.6922	0.4654
	제조업	9.8745	10.1184	-0.2439
고용유발승수 (명/10억원)	관광산업	12.8848	10.7270	2.1578
	전산업	9.8039	9.3412	0.4627
	제조업	7.3889	7.3624	0.0265
부가가치 유발승수	관광산업	0.8331	0.8229	0.0102
	전산업	0.7308	0.7141	0.0167
	제조업	0.5946	0.5725	0.0221
수입유발승수	관광산업	0.1669	0.1771	-0.0102
	전산업	0.2692	0.2859	-0.0167
	제조업	0.4054	0.4275	-0.0221
세수유발승수	관광산업	0.1044	0.1063	-0.0018
	전산업	0.0809	0.0810	-0.0001
	제조업	0.0740	0.0741	-0.0001

3. 외화가득률 비교 분석

□ 외화가득률 비교 분석

○ 외화가득률은 보통 수출액에서 수출상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된 수입원자재액만을 공제하여 계산함. 그러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게 되면 수출액에서 그 수출상품을 생산하는데 직접투입된 수입원자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입액까지도 모두 공제하여 계산 가능하여 보다 정확한 외화가득률을 얻을 수 있음(산업연관분석해설, p.120)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화가득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음

- 외화가득률(%) = [수출액 - (수입유발계수 X 수출액)] ÷ 수출액

○ 외화가득률은 결국 수출상품의 경우 1에서 수입유발계수를 뺀 부가가치유발승수와 같은 개념으로 부가가치유발승수에서 산출될 수 있음

○ 2009년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83.3%)은 2008년(82.3%)보다 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산업의 평균(73.1%), 제조업의 평균(59.5%)보다 모두 높게 분석됨(〈표 4-11〉 참고)

○ 외화획득 기여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은 2008년 2009년 모두 관광산업이 전산업 평균과 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분석됨

〈표 4-11〉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외화가득률 및 산업별 순위

부문명칭		2008년 외화가득률		2009년 외화가득률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80.5	15	82.0	16
	2. 광산품	82.3	14	83.6	14
제조업	3. 음식료품	70.1	22	71.0	22
	4. 섬유 및 가죽제품	64.7	24	65.6	25
	5. 목재 및 종이제품	55.8	31	60.6	30
	6. 인쇄 및 복제	76.1	19	77.3	19
	7. 석유 및 석탄제품	23.2	37	26.0	37
	8. 화학제품	46.8	33	50.3	33
	9. 비금속광물제품	63.2	26	64.6	27
	10. 제1차 금속제품	43.4	34	46.7	35
	11. 금속제품	60.0	29	64.3	28
	12. 일반 기계	62.9	27	65.5	26
	13. 전기 및 전자기기	50.3	32	50.4	32
	14. 정밀기기	62.5	28	62.7	29
	15. 수송장비	59.1	30	60.6	31
	16. 기타제조업제품	63.5	25	66.9	24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35.9	36	45.3	36
	18. 건설	73.7	20	75.3	21
서비스업	19. 도매	85.7	11	86.2	11
	20. 운수 및 보관	72.9	21	75.6	20
	21. 통신 및 방송	84.1	13	84.0	13
	22. 금융 및 보험	91.1	3	91.3	2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90.7	4	91.0	4
	24. 공공행정 및 국방	85.9	10	87.0	9
	25. 교육 및 보건	86.9	9	86.9	10
	26. 사회및기타서비스	80.2	16	81.1	17
	27. 기타	68.1	23	69.2	23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88.6	7	88.8	7
	29. 식음료	91.2	2	91.2	3
	30. 숙박업	77.1	18	77.4	18
	31. 관광교통	87.0	8	87.6	8
	32. 운수보조업	42.0	35	46.7	34
	33. 차량임대업	93.9	1	94.2	1
	34. 여행업	80.1	17	82.5	15
	35. 문화예술공연	89.7	5	89.4	6
	36. 운동경기	84.2	12	85.4	12
	37. 오락 및 유흥	89.1	6	89.9	5
관광산업 평균(28-37)		82.3		83.3	
전산업 평균(1-37)		71.4		73.1	
제조업 평균(3-16)		57.3		59.5	
서비스업 평균(19-37)		82.5		83.4	

4. 부가가치율 비교 분석

○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음(한국은행 2011, 2009년 전국산업연관표, p. 46)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투입액)X100

○ 2009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율(57.2%)은 전산업 평균(42.2%)과 제조업 평균(25.6%)보다 높게 분석되며, 관광산업이 속해 있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3.9%로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이 100을 생산했을 때 국내에서 임금과 기업이윤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57.2% 창출되는 것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2009년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율을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관광교통 및 문화예술공연 부문에서 부가가치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4-12〉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및 산업별 순위

부문명칭			2008년 부가가치율		2009년 부가가치율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51.6	14	52.1	14
		2. 광산품	58.4	11	58.5	10
제조업		3. 음식료품	26.8	25	25.4	31
		4. 섬유 및 가죽제품	30.8	22	29.8	23
		5. 목재 및 종이제품	24.1	30	27.5	27
		6. 인쇄 및 복제	40.7	19	38.9	20
		7. 석유 및 석탄제품	18.8	34	20.3	34
		8. 화학제품	18.3	35	20.1	35
		9. 비금속광물제품	28.7	23	30.4	22
		10. 제1차 금속제품	14.8	36	14.8	36
		11. 금속제품	25.3	28	27.0	28
		12. 일반 기계	24.9	29	26.2	29
		13. 전기 및 전자기기	22.5	32	21.1	33
		14. 정밀기기	26.2	26	25.5	30
		15. 수송장비	22.8	31	23.8	32
		16. 기타제조업제품	26.9	24	28.2	25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21.0	33	29.0	24
		18. 건설	40.3	20	40.1	19
서비스업		19. 도매	61.1	9	58.8	9
		20. 운수 및 보관	44.6	16	46.9	16
		21. 통신 및 방송	43.5	18	44.2	18
		22. 금융 및 보험	56.3	13	55.5	13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8.4	2	68.4	2
		24. 공공행정 및 국방	67.0	5	67.2	3
		25. 교육 및 보건	67.5	4	66.3	5
		26. 사회및기타서비스	44.5	17	44.5	17
		27. 기타	0.0	37	0.0	37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59.7	10	57.9	11
		29. 식음료	36.4	21	35.2	21
		30. 숙박업	67.8	3	67.0	4
		31. 관광교통	25.8	27	28.0	26
		32. 운수보조업	83.3	1	83.5	1
		33. 차량임대업	57.6	12	57.3	12
		34. 여행업	64.9	6	63.1	8
		35. 문화예술공연	48.4	15	50.3	15
		36. 운동경기	64.5	8	65.2	6
		37. 오락 및 유흥	64.6	7	64.0	7
관광산업 평균(28-37)			57.3		57.2	
전산업 평균(1-37)			41.9		42.2	
제조업 평균(3-16)			25.1		25.6	
서비스업 평균(19-37)			54.0		53.9	

제3절 시사점

○ 2009년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승수를 비교한 결과, 관광산업이 제조업보다 소득·고용·취업·부가가치·세수유발승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수입유발승수효과의 경우 관광산업이 전산업 평균과 제조업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부가가치유발승수의 경우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제조업과 비교하여 약 1.4 배 높게 분석됨

○ 관광산업은 외화가득률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보다 수입의존도가 낮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2008년, 2009년 모두 전산업 평균과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외화가득률을 나타냄

○ 2009년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2008년보다 각각 2.7514, 2.1578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우 각각 0.4654, 0.4627 증가하여, 관광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신규 고용창출에 유리한 산업임을 입증함

제 5 장 관광지출의 경제파급효과

제1절 분석 체계[4)]

○ 관광 지출의 파급효과분석은 2010년 기준 국민 국내관광 지출액과 외래객 관광 지출액을 산업연관분석의 최종수요에 적용하여 분석함

○ 국민 국내관광 지출액 추계는 '2010 국민여행실태조사'와 '2008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에서 추계된 지출액을 항목별 구성비를 조정하여 '2009년 산업연관표'의 관광산업분류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적용함

○ 외래객 관광지출액 추계방법도 국내 관광지출액 추계와 유사하게 '2008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의 지출액 추계자료를 활용하고, '2010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의 구성비를 조정하여 '2009년 산업연관표'의 관광산업 부문 분류에 적용하여 분석함

○ 항목별 관광지출액 추계에서 산업연관표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부문은 관련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있는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에 적용함

○ 관광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체계는 [그림 5-1]과 같음

4) 본 절은 '이강욱(2010),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정리함

1. 관광지출액 추계	비고
- 국민 국내관광객 지출액 분석 - 외래객 관광지출액 분석	● 2010 국민여행실태조사 (2011.5) ● 2008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 2010 ● 2010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1.2)

⇩

2. 관광지출의 산업연관표 적용	비고
- 관광관련 지출항목을 산업연관표 산업부문(403) 적용하여 분류	● 관광지출항목을 산업연관표 산업분류에 적합한 산업에 적용 ● 불일치되는 부분은 유사 산업에 포함, 총 산출액의 비율로 지출액 배분 등의 방법으로 적용함

⇩

3. 산업연관표를 이용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비고
- 분류된 부문항목별 지출액을 통합 분류된 산업연관표의 최종 수요 부문으로 적용하여 경제적효과 분석	● 2009년 전국산업연관표, 2011 ● 본 연구에 관광산업 37부문으로 분류된 산업연관표를 적용함

[그림 5-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체계

제2절 관광 지출 추계 및 적용

1. 국민 국내관광 지출 추계 및 적용

가. 국민여행실태조사 (2010)기준

○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의 국내여행 총비용은 16조 8,597억원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표 5-1〉 국민 국내관광 지출 추계(2007년~2009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숙박여행	당일여행
국내 여행 총비용		15,757,038	15,711,047	16,364,538	16,859,774	12,405,931	4,453,843
	관광여행	-	-	8,731,353	8,761,348	6,855,707	1,905,641
	기타여행	-	-	7,633,185	8,098,426	5,550,224	2,548,2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

주 1) 2008년과 2007년 조사에서는 여행유형(관광여행 및 기타여행)을 구분하지 않음

2) 2009년을 기점으로 조사 설계 및 총량추정 방법이 변경됨

○ 국내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항목별 구성비〈표 5-2〉

- 국내여행 경험자의 관광관련지출항목의 구성비를 볼 때, 단체여행비(회비) 비중이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통비(20.4%), 외식비(18.3%)순으로 구성됨

○ 2009년과 2010년 구성비를 비교해 볼 때, 숙박비의 구성비가 약 3%감소하였으며, 단체여행비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행상품구입비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5-2〉 국내 여행 경험자 1회 평균 항목별 여행 지출액 구성비

(단위 : %)

구분	2010년	2009년
1. 식/음료품비	**10.6**	**8.5**
- 식재료	9.6	7.3
- 음료/주류/담배	1.1	1.3
2. 외식비	**18.3**	**19.6**
3. 숙박비	**9.7**	**11.4**
- 호텔	1.4	1.6
- 유스호스텔	0.1	-
- 콘도	2.6	3.6
- 모텔/여관	1.4	1.2
- 펜션/민박	3.9	4.6
- 자연휴양림	0.1	0.1
- 야영	0.1	0.1
- 기타	0.1	0.1
4. 문화/오락 운동비	**5.5**	**6.3**
- 문화서비스	0.9	1.5
- 운동 및 오락서비스	3.7	3.9
- 용품(장비)구입 및 임대비	0.9	0.8
- 기타	0.0	-
5. 교통비	**20.4**	**21.8**
- 대중교통비	5.2	5.7
- 운송기구임대비	1.1	1.3
- 운송기구연료비	12.7	13.5
-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비	0.0	0.1
- 기타	1.4	1.3
6. 단체여행비[회비]	**20.8**	**24.2**
7. 여행상품구입비	**8.3**	**4.1**
8. 쇼핑비[상품서비스]	**4.9**	**3.3**
- 귀금속/시계/장신구	0.2	0.3
- 위생 및 이미용 용품서비스	1.0	1.0
- 의류 및 신발	2.5	1.7
- 가정용품	0.1	0.1
- 기타개인용품	1.1	0.2
9. 기타	**1.4**	**0.8**
합	100.0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국민여행실태조사

주 1) 국내여행은 관광여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2009년 자료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임

나. 국내관광 지출의 산업연관표 적용

○ 국내관광 지출의 항목 별 지출액을 산업연관표 상 관광산업

으로 분류한 산업 부문과 일치시켜 국내관광 지출액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

○ 관광위성 계정 및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추계한 총 관광 지출액대비 개별 관광산업 간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관광 총 지출액을 배분하여 효과를 추정함(이강욱, 2010, pp.61-63)

○ 관광위성계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상품이 분류되어, 산업연관표에서의 관광산업 분류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민여행실태조사의 1인당 평균 비율과 비교한 후, 산업분류(403부문)에 맞게 적절하게 재조정하여 산업별 국내 관광지출액과 구성비를 도출하였음

- 국민 여행실태조사 및 관광위성계정에서의 관광 산업의 항목별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지출액에서 개별관광 관련산업의 비율 범위를 추계하여 중간값을 비율 배분의 기준으로 함

○ 국내 관광 산업별 지출액 구성은 식음료(37.70%)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광교통(25.75%), 숙박업(11.50) 순으로 분석됨

〈표 5-3〉 국내 관광 산업별 지출액 추계

(단위 : %, 백만원)

구분	배분 비율 범위 (%)	국민국내관광지출	
		비율(%)	금액
소매업(관광쇼핑)	5.5 -7.5	6.87	1,158,266.5
식음료	30 - 42	37.70	6,356,134.8
숙박업	9.5 - 12.5	11.50	1,938,874.0
관광교통	21 -30	25.75	4,341,391.8
운수보조업	1.5 - 2.5	1.87	315,277.8
차량임대업	1.0 -2.5	1.25	210,747.2
여행업	9.5 -13.5	8.50	1,433,080.8
문화예술공연	1.5 -3.5	2.15	362,485.1
운동경기	1.5 -3	1.75	295,046.0
오락 및 유흥	2.0 -3.0	2.25	379,344.9
기타	0.0 - 1.0	0.41	69,125.1
합계	-	100.0	16,859,774.0

2. 외래객 관광 지출 추계 및 적용

가. 국제관광객 및 관광지출 변화추이

○ 2010년 기준 관광수입은 10,321.4백만달러로 추계되며,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US$1,173로 추정됨(관광지식정보시스템)

○ 2010년 평균 외환환율 기준(1,156.26원)으로 관광수입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조 9,342억원이며, 외래객 1인당 관광지출액은 약 135만 6천원으로 분석됨

- 관광수입액 원화환산 : 10,321.4 X 2010년 평균 환율(1,156.26원) = 11,934,221.96백만원(약 11조 9,342억 2천만원)
- 1인당 외래객 지출액 원화환산 : US$1,173 X 2010년 평균 환율(1,156.3원) = 1,356,339원(약 135만6천원)

〈표 5-4〉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

(단위 : %, 100만달러)

구분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1인당 지출액(US$)				평균환율
						외래관광객		국민해외관광객		원/달러
2005년	5,793.0	-4.3	12,025.0	22.0	-6,232.0	968	-7.4	1,247	6.7	1,024.3
2006년	5,759.8	-0.6	14,337.9	19.2	-8,576.1	936	-3.3	1,235	-1.0	955.5
2007년	6,093.5	5.8	16,950.0	18.2	-10,856.5	945	1.0	1,272	3.0	929.2
2008년	9,719.1	59.5	14,580.7	-14.0	-4,861.6	1,410	49.2	1,215	-4.5	1,102.6
2009년	9,782.4	0.7	11,040.4	-24.3	-1,258.0	1,254	-11.1	1,170	-3.7	1,276.4
2010년	10,321.4	5.5	14,291.5	29.4	-3,970.0	1,173	-6.5	1,144	-2.2	1,156.3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 2010년 관광지출은 14,291.5백만달러이고, 관광수지는 -39,970백만달러로 관광수지 적자를 나타냄

나.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2011)기준

○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여행 중 총지출경비는 1인당 평균 US$1,224.4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쇼핑비가 US$471.9(38.5%)로 가장 많았고, 숙박비(US$392.9), 식음료비(US$192.6), 교통비(US$62.5), 오락관련 지출(US$55.7)순으로 높게 분석됨

○ 외국인 개별여행객 지출 경비 구성비를 국내 여행경험자 지출액 구성비와 비교해보면, 외국인 개별여행객은 쇼핑비(38.5%)와 숙박비(32.1%)가 비중이 큰 반면, 국내 관광 지출액 구성은 단체여행비(20.8%)와 교통비(20.4%)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쇼핑비(4.9%)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표 5-2〉와 〈표 5-6〉참고)

○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US$1,173)과 외국인 한국여행 중 개인지출경비(US$1,224)의 차이는 약 US$51로 분석됨

〈표 5-5〉 외국인 개별여행객 지출 경비(개인여행)

(단위 : %, US$)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총 지출경비	1,224.40	1,123.60	1,139.20	1,273.60	1,192.60
쇼핑비	471.9	443.8	399.5	441.2	390.4
숙박비	392.9	351.5	378.2	405	433.9
식음료비	192.6	176.3	192.1	203.5	177.2
교통비	62.5	54.6	63.1	76.5	87.8
오락관련 지출	55.7	52	48.3	44.4	42.5
문화관련 지출	13.5	14.1	11.7	14.3	14.6
한국 여행사 지불비	10.8	5.1	5.5	10.2	15.1
운동관련 지출	3.8	4.9	4.4	5	4.1
기타 비용	20.8	20.9	36	72.9	27

주: 총 지출 경비와 항목별 경비를 각각 질문하여, 경비를 산출한 결과이므로 항목별 합이 총 지출 경비의 합과 동일하지 않을 수있음 (단, 항목별 경비 합은 총경비의 90%~110% 이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표 5-6〉 외국인 개별여행객 지출 경비 구성비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평균
쇼핑비	38.5	39.5	35.1	34.6	32.7	39.0
숙박비	32.1	31.3	33.2	31.8	36.4	31.7
식음료비	15.7	15.7	16.9	16.0	14.9	15.7
교통비	5.1	4.9	5.5	6.0	7.4	5.0
오락관련 지출	4.5	4.6	4.2	3.5	3.6	4.6
문화관련 지출	1.1	1.3	1.0	1.1	1.2	1.2
한국여행사지불비	0.9	0.5	0.5	0.8	1.3	0.7
운동관련 지출	0.3	0.4	0.4	0.4	0.3	0.4
기타 비용	1.7	1.9	3.2	5.7	2.3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다. 외래객 지출의 산업연관표 적용

○ 한국위성관광계정 기준 산업별 외래객 관광 지출액과 구성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업연관표상의 산업을 분류하여 파급효과 분석에 적용함(〈표 5-7〉참고) (이강욱, 2010, pp.61-63)

- 국내관광지출의 파급효과 분석과 유사하게 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함

○ 관광 산업별 외국인 관광지출액의 구성은 소매업(34.50%), 숙박업(30.5%), 식음료(18%)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7〉 관광 산업별 외국인 관광지출액 구성비

(단위 : %, 백만원)

구분	배분 비율 범위 (%)	외래객 관광지출	
		비율(%)	금액
소매업(관광쇼핑)	25 -46	34.50	4,117,306.6
식음료	15 -23	18.00	2,148,160.0
숙박업	20 - 41	30.50	3,639,937.7
관광교통	4.0 - 6.0	5.00	596,711.1
운수보조업	0	0.00	0.0
차량임대업	0.5-3.0	1.75	208,848.9
여행업	0.5 -1	0.80	95,473.8
문화예술공연	1-1.5	1.20	143,210.7
운동경기	0.5-1.5	1.00	119,342.2
오락 및 유흥	3.0-65.0	4.50	537,040.0
기타	2.0-4.0	2.75	328,191.1
합계	-	100.0	11,934,22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외래객 총지출액과 여행실태조사의 1인당 경비 지출 비율을 적용하여 산업분류에 맞게 항목별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측정함

제3절 관광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1. 국내관광지출의 파급효과

○ 국내 관광관련 산업에 대한 지출액 추정결과 16조 8,597억 74백만원으로, 이를 관광산업의 최종수요 발생에 의해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30조 1,314억 40.2백만원으로 직접효과 17조 9,656억 9백만원(59.6%), 간접효과 12조 1,658억 39.3백만원(40.4%)으로 분석됨

○ 소득유발효과는 총효과 5조 3,629억 49.8백만원, 직접효과 3조 7,729억 97.8백만원(70.4%), 간접효과 1조 5,899억 52백만원(29.6%)으로 분석됨

○ 취업유발효과의 총효과는 40만 6,955명, 직접효과 31만 4,009.3명(77.2%), 간접효과 9만 2,946명(22.8%)로 분석됨

○ 고용유발효과의 총효과는 21만 1,713명, 직접효과 16만 434.6명(75.8%), 간접효과 5만 1,278명(24.2%)으로 분석됨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총효과는 12조 3,945억 19.5백만원, 직접효과 7조 6,178억 2.8백만원(61.5%), 간접효과 4조 7,767억 16.7백만원(38.5%)로 분석됨

○ 수입유발효과의 총효과는 4조 4,652억 54.5백만원, 직접효과 2조 3,670억 5.2백만원(53.0%), 간접효과 2조 982억 49.3백만원(47.0%)로 분석됨

○ 세수유발효과의 총효과는 1조 8,335,억 77.3백만원, 직접효과 1조 282억 92.4백만원(56.1%), 간접효과 8,052억 84.9백만원(43.9%)로 분석됨

〈표 5-8〉 국내 관광지출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부문명칭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비율(%)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1,192,318.2	4.0	78,898.7	1.5
	2. 광산품	13,131.7	0.04	2,939.9	0.1
제조업	3. 음식료품	2,521,766.0	8.4	163,069.7	3.0
	4. 섬유 및 가죽제품	113,238.0	0.4	16,117.3	0.3
	5. 목재 및 종이제품	252,767.4	0.8	32,029.1	0.6
	6. 인쇄 및 복제	76,130.6	0.3	11,985.2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1,130,678.0	3.8	13,730.7	0.3
	8. 화학제품	682,715.7	2.3	57,262.2	1.1
	9. 비금속광물제품	63,830.6	0.2	7,440.1	0.1
	10. 제1차 금속제품	209,771.5	0.7	11,563.9	0.2
	11. 금속제품	154,178.2	0.5	21,214.8	0.4
	12. 일반 기계	102,489.8	0.3	15,470.3	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213,597.5	0.7	17,764.9	0.3
	14. 정밀기기	35,357.6	0.1	5,056.5	0.1
	15. 수송장비	296,970.2	1.0	32,680.5	0.6
	16. 기타제조업제품	121,084.0	0.4	20,271.3	0.4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677,204.9	2.2	63,890.9	1.2
	18. 건설	76,791.4	0.3	18,595.2	0.3
서비스업	19. 도매	475,980.3	1.6	122,447.6	2.3
	20. 운수 및 보관	305,228.6	1.0	79,752.7	1.5
	21. 통신 및 방송	448,572.4	1.5	75,622.6	1.4
	22. 금융 및 보험	705,935.2	2.3	150,233.3	2.8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283,561.8	4.3	305,488.7	5.7
	24. 공공행정 및 국방	49,108.3	0.2	22,731.4	0.4
	25. 교육 및 보건	167,118.8	0.6	87,577.9	1.6
	26. 사회및기타서비스	116,775.6	0.4	30,897.8	0.6
	27. 기타	532,967.4	1.8	0.0	0.0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1,544,559.0	5.1	337,479.3	6.3
	29. 식음료	6,625,131.9	22.0	1,151,564.1	21.5
	30. 숙박업	1,956,053.2	6.5	543,763.3	10.1
	31. 관광교통	4,459,758.1	14.8	853,356.4	15.9
	32. 운수보조업	443,062.5	1.5	115,947.3	2.2
	33. 차량임대업	354,484.5	1.2	42,868.9	0.8
	34. 여행업	1,551,664.1	5.1	538,523.1	10.0
	35. 문화예술공연	466,738.0	1.5	164,753.6	3.1
	36. 운동경기	325,052.4	1.1	82,349.9	1.5
	37. 오락 및 유흥	385,666.7	1.3	67,610.8	1.3
총효과		30,131,440.2	100.0	5,362,949.8	100.0
직접효과		17,965,600.9	59.6	3,772,997.8	70.4
간접효과		12,165,839.3	40.4	1,589,952.0	29.6

주 : 국내관광지출의 직접효과는 〈표5-3〉 관광지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관광산업 유발액의 합계임

〈표 5-9〉 국내 관광지출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단위 : 명)

부문명칭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율(%)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38,915	9.6	4,457	2.1
	2. 광산품	60	0.0	55	0.0
제조업	3. 음식료품	7,470	1.8	5,496	2.6
	4. 섬유 및 가죽제품	777	0.2	645	0.3
	5. 목재 및 종이제품	984	0.2	858	0.4
	6. 인쇄 및 복제	696	0.2	519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187	0.0	186	0.1
	8. 화학제품	1,351	0.3	1,287	0.6
	9. 비금속광물제품	202	0.0	188	0.1
	10. 제1차 금속제품	161	0.0	156	0.1
	11. 금속제품	772	0.2	659	0.3
	12. 일반 기계	397	0.1	371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467	0.1	453	0.2
	14. 정밀기기	199	0.0	187	0.1
	15. 수송장비	710	0.2	696	0.3
	16. 기타제조업제품	768	0.2	593	0.3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740	0.2	739	0.3
	18. 건설	661	0.2	637	0.3
서비스업	19. 도매	4,895	1.2	5,999	2.8
	20. 운수 및 보관	4,853	1.2	3,251	1.5
	21. 통신 및 방송	1,202	0.3	1,181	0.6
	22. 금융 및 보험	3,676	0.9	3,646	1.7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9,358	2.3	8,574	4.0
	24. 공공행정 및 국방	436	0.1	436	0.2
	25. 교육 및 보건	2,364	0.6	2,148	1.0
	26. 사회및기타서비스	2,173	0.5	1,368	0.6
	27. 기타	-	0.0	-	0.0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63,128	15.5	13,717	6.5
	29. 식음료	136,021	33.4	65,735	31.0
	30. 숙박업	42,065	10.3	24,349	11.5
	31. 관광교통	33,649	8.3	23,364	11.0
	32. 운수보조업	1,139	0.3	1,119	0.5
	33. 차량임대업	4,549	1.1	4,273	2.0
	34. 여행업	28,250	6.9	26,535	12.5
	35. 문화예술공연	5,578	1.4	3,250	1.5
	36. 운동경기	3,924	1.0	2,222	1.0
	37. 오락 및 유흥	4,180	1.0	2,367	1.1
총효과		406,955	100.0	211,713	100.0
직접효과		314,009.3	77.2	160,434.6	75.8
간접효과		92,946	22.8	51,278	24.2

주 : 〈표 5-8〉의 주 참조

〈표 5-10〉 국내 관광지출의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부문명칭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비율(%)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621,792.9	5.0	39,721.4	0.9
		2. 광산품	7,683.0	0.1	132.4	0.0
제조업		3. 음식료품	641,354.6	5.2	380,977.8	8.5
		4. 섬유 및 가죽제품	33,762.9	0.3	18,299.6	0.4
		5. 목재 및 종이제품	69,385.0	0.6	49,971.6	1.1
		6. 인쇄 및 복제	29,643.9	0.2	4,390.5	0.1
		7. 석유 및 석탄제품	229,559.0	1.9	786,290.7	17.6
		8. 화학제품	136,980.4	1.1	163,382.1	3.7
		9. 비금속광물제품	19,385.3	0.2	10,841.4	0.2
		10. 제1차 금속제품	31,052.2	0.3	47,317.5	1.1
		11. 금속제품	41,664.7	0.3	11,432.9	0.3
		12. 일반 기계	26,859.3	0.2	10,776.0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44,967.8	0.4	65,801.0	1.5
		14. 정밀기기	9,024.1	0.1	6,201.4	0.1
		15. 수송장비	70,549.9	0.6	48,429.9	1.1
		16. 기타제조업제품	34,112.7	0.3	13,659.9	0.3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196,440.7	1.6	275,043.1	6.2
		18. 건설	30,791.4	0.2	3,685.3	0.1
서비스업		19. 도매	279,893.5	2.3	21,622.2	0.5
		20. 운수 및 보관	143,184.4	1.2	7,094.6	0.2
		21. 통신 및 방송	198,237.9	1.6	31,042.3	0.7
		22. 금융 및 보험	391,746.8	3.2	20,424.0	0.5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77,998.0	7.1	30,798.8	0.7
		24. 공공행정 및 국방	33,007.0	0.3	2,644.8	0.1
		25. 교육 및 보건	110,872.7	0.9	5,214.9	0.1
		26. 사회및기타서비스	51,912.5	0.4	3,018.2	0.1
		27. 기타	0.0	0.0	51,010.6	1.1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894,738.0	7.2	22,839.1	0.5
		29. 식음료	2,332,863.8	18.8	487,984.1	10.9
		30. 숙박업	1,310,907.4	10.6	25,145.2	0.6
		31. 관광교통	1,248,623.0	10.1	1719,723.6	38.5
		32. 운수보조업	369,814.1	3.0	3,647.0	0.1
		33. 차량임대업	203,047.2	1.6	36,771.7	0.8
		34. 여행업	979,090.6	7.9	28,936.8	0.6
		35. 문화예술공연	234,780.0	1.9	22,720.4	0.5
		36. 운동경기	211,806.7	1.7	3,263.3	0.1
		37. 오락 및 유흥	246,985.9	2.0	4,998.3	0.1
총효과			12,394,519.5	100.0	4,465,254.5	100.0
직접효과			7,617,802.8	61.5	2,367,005.2	53.0
간접효과			4,776,716.7	38.5	2,098,249.3	47.0

주 : 〈표 5-8〉의 주 참조

〈표 5-11〉 국내 관광지출의 세수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부문명칭		세수유발효과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19,716.7	1.1
	2. 광산품	90.7	0.0
제조업	3. 음식료품	298,167.6	16.3
	4. 섬유 및 가죽제품	3,838.1	0.2
	5. 목재 및 종이제품	6,206.8	0.3
	6. 인쇄 및 복제	4,332.5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191,705.9	10.5
	8. 화학제품	9,396.4	0.5
	9. 비금속광물제품	472.2	0.0
	10. 제1차 금속제품	488.6	0.0
	11. 금속제품	1,168.4	0.1
	12. 일반 기계	1,668.7	0.1
	13. 전기 및 전자기기	2,130.8	0.1
	14. 정밀기기	1,074.3	0.1
	15. 수송장비	8,148.6	0.4
	16. 기타제조업제품	4,726.9	0.3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22,969.8	1.3
	18. 건설	4,960.4	0.3
서비스업	19. 도매	4,726.4	0.3
	20. 운수 및 보관	5,174.8	0.3
	21. 통신 및 방송	20,280.6	1.1
	22. 금융 및 보험	33,265.9	1.8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94,572.3	5.2
	24. 공공행정 및 국방	2.2	0.0
	25. 교육 및 보건	428.6	0.0
	26. 사회및기타서비스	6,503.0	0.4
	27. 기타	0.0	0.0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18,153.1	1.0
	29. 식음료	606,467.4	33.1
	30. 숙박업	133,951.7	7.3
	31. 관광교통	105,121.6	5.7
	32. 운수보조업	8,881.9	0.5
	33. 차량임대업	8,715.2	0.5
	34. 여행업	45,196.3	2.5
	35. 문화예술공연	12,577.9	0.7
	36. 운동경기	50,352.5	2.7
	37. 오락 및 유흥	97,942.6	5.3
총효과		1,833,577.3	100.0
직접효과		1,028,292.4	56.1
간접효과		805,284.9	43.9

주 : 〈표 5-8〉의 주 참조

2. 외래객 관광지출의 파급효과

○ 2010년 외래관광객 지출액은 11조 9,342억 22백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의 총효과는 21조 128억 56.1백만원, 직접효과 12조 9,936억 50.6백만원(61.8%), 간접효과 8조 192억 5.5백만원(38.2%)로 분석됨

○ 소득유발효과의 총효과는 3조 9,865억 87.3백만원, 직접효과 2조 7,971억 18.6백만원(70.2%), 간접효과 1조 1,894억 68.7백만원(29.8%)로 분석됨

○ 취업유발효과의 총효과는 38만 1,632명, 직접효과 32만 6,025명(85.4%), 간접효과 5만 5,607명(14.6%)로 분석됨

○ 고용유발효과의 총효과는 15만 7,877명, 직접효과 12만 1,418명(76.9%), 간접효과 3만 6,459명(23.1%)로 분석됨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총효과는 9조 9,884억 5.1백만원, 직접효과 6조 6,886억 47.7백만원(66.9%), 간접효과 3조 3,017억 57.4백만원(33.1%)로 분석됨

○ 수입유발효과의 총효과는 1조 9,458억 17백만원, 직접효과 6,570억 79.9백만원(33.8%), 간접효과 1조 2,887억 37.1백만원(66.2%)로 분석됨

○ 세수유발효과의 총효과는 1조 1,594억 36.7백만원, 직접효과 7,009억 45백만원(60.5%), 간접효과 4,584억 91.7백만원(39.5%)로 분석됨

〈표 5-12〉 외래객 관광지출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부문명칭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비율(%)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482,966.5	2.3	31,959.1	0.8
	2. 광산품	8,589.1	0.04	1,922.9	0.0
제조업	3. 음식료품	1,017,323.9	4.8	65,785.1	1.7
	4. 섬유 및 가죽제품	132,145.7	0.6	18,808.5	0.5
	5. 목재 및 종이제품	271,109.7	1.3	34,353.3	0.9
	6. 인쇄 및 복제	69,858.8	0.3	10,997.8	0.3
	7. 석유 및 석탄제품	508,910.6	2.4	6,180.1	0.2
	8. 화학제품	530,309.4	2.5	44,479.3	1.1
	9. 비금속광물제품	44,136.2	0.2	5,144.5	0.1
	10. 제1차 금속제품	137,462.5	0.7	7,577.8	0.2
	11. 금속제품	104,324.4	0.5	14,355.0	0.4
	12. 일반 기계	71,625.4	0.3	10,811.5	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159,039.0	0.8	13,227.2	0.3
	14. 정밀기기	17,358.7	0.1	2,482.5	0.1
	15. 수송장비	110,874.3	0.5	12,201.3	0.3
	16. 기타제조업제품	95,964.2	0.5	16,065.9	0.4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701,466.9	3.3	66,179.9	1.7
	18. 건설	75,375.6	0.4	18,252.4	0.5
서비스업	19. 도매	257,570.0	1.2	66,260.8	1.7
	20. 운수 및 보관	273,984.6	1.3	71,589.0	1.8
	21. 통신 및 방송	549,852.7	2.6	92,696.9	2.3
	22. 금융 및 보험	549,291.7	2.6	116,897.3	2.9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67,837.1	5.6	277,946.1	7.0
	24. 공공행정 및 국방	13,372.8	0.1	6,190.0	0.2
	25. 교육 및 보건	146,520.3	0.7	76,783.3	1.9
	26. 사회및기타서비스	113,515.6	0.5	30,035.2	0.8
	27. 기타	745,983.5	3.6	0.0	0.0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4,349,469.9	20.7	950,339.9	23.8
	29. 식음료	2,524,669.7	12.0	438,831.9	11.0
	30. 숙박업	3,663,983.0	17.4	1,018,550.7	25.5
	31. 관광교통	690,397.0	3.3	132,104.6	3.3
	32. 운수보조업	46,375.2	0.2	12,136.2	0.3
	33. 차량임대업	250,619.0	1.2	30,308.1	0.8
	34. 여행업	204,785.7	1.0	71,073.3	1.8
	35. 문화예술공연	222,011.2	1.1	78,367.6	2.0
	36. 운동경기	157,800.8	0.8	39,977.8	1.0
	37. 오락 및 유흥	545,975.3	2.6	95,714.4	2.4
총효과		21,012,856.1	100.0	3,986,587.3	100.0
직접효과		12,993,650.6	61.8	2,797,118.6	70.2
간접효과		8,019,205.5	38.2	1,189,468.7	29.8

〈표 5-13〉 외래객 관광지출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단위 : 명)

부문명칭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율(%)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15,763	4.1	1,805	1.1
	2. 광산품	39	0.0	36	0.0
제조업	3. 음식료품	3,014	0.8	2,217	1.4
	4. 섬유 및 가죽제품	907	0.2	752	0.5
	5. 목재 및 종이제품	1,055	0.3	920	0.6
	6. 인쇄 및 복제	639	0.2	477	0.3
	7. 석유 및 석탄제품	84	0.0	84	0.1
	8. 화학제품	1,049	0.3	999	0.6
	9. 비금속광물제품	140	0.0	130	0.1
	10. 제1차 금속제품	105	0.0	102	0.1
	11. 금속제품	523	0.1	446	0.3
	12. 일반 기계	277	0.1	259	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347	0.1	337	0.2
	14. 정밀기기	98	0.0	92	0.1
	15. 수송장비	265	0.1	260	0.2
	16. 기타제조업제품	609	0.2	470	0.3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766	0.2	766	0.5
	18. 건설	649	0.2	625	0.4
서비스업	19. 도매	2,649	0.7	3,246	2.1
	20. 운수 및 보관	4,356	1.1	2,919	1.8
	21. 통신 및 방송	1,474	0.4	1,448	0.9
	22. 금융 및 보험	2,860	0.7	2,837	1.8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514	2.2	7,801	4.9
	24. 공공행정 및 국방	119	0.0	119	0.1
	25. 교육 및 보건	2,073	0.5	1,883	1.2
	26. 사회및기타서비스	2,112	0.6	1,330	0.8
	27. 기타	-	0.0	-	0.0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177,769	46.6	38,627	24.5
	29. 식음료	51,834	13.6	25,050	15.9
	30. 숙박업	78,794	20.6	45,609	28.9
	31. 관광교통	5,209	1.4	3,617	2.3
	32. 운수보조업	119	0.0	117	0.1
	33. 차량임대업	3,216	0.8	3,021	1.9
	34. 여행업	3,728	1.0	3,502	2.2
	35. 문화예술공연	2,653	0.7	1,546	1.0
	36. 운동경기	1,905	0.5	1,079	0.7
	37. 오락 및 유흥	5,918	1.6	3,350	2.1
총효과		381,632	100.0	157,877	100.0
직접효과		326,025.0	85.4	121,418.0	76.9
간접효과		55,607	14.6	36,459	23.1

〈표 5-14〉 외래객 관광지출의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부문명칭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비율(%)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251,866.6	2.5	16,089.7	0.8
	2. 광산품	5,025.3	0.1	86.6	0.0
제조업	3. 음식료품	258,733.5	2.6	153,693.0	7.9
	4. 섬유 및 가죽제품	39,400.4	0.4	21,355.2	1.1
	5. 목재 및 종이제품	74,420.0	0.7	53,597.9	2.8
	6. 인쇄 및 복제	27,201.7	0.3	4,028.8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103,323.0	1.0	353,904.2	18.2
	8. 화학제품	106,401.5	1.1	126,909.4	6.5
	9. 비금속광물제품	13,404.2	0.1	7,496.4	0.4
	10. 제1차 금속제품	20,348.4	0.2	31,007.0	1.6
	11. 금속제품	28,192.3	0.3	7,736.0	0.4
	12. 일반 기계	18,770.7	0.2	7,530.8	0.4
	13. 전기 및 전자기기	33,481.8	0.3	48,993.7	2.5
	14. 정밀기기	4,430.4	0.0	3,044.6	0.2
	15. 수송장비	26,339.9	0.3	18,081.4	0.9
	16. 기타제조업제품	27,035.8	0.3	10,826.1	0.6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203,478.5	2.0	284,897.1	14.6
	18. 건설	30,223.7	0.3	3,617.3	0.2
서비스업	19. 도매	151,460.4	1.5	11,700.5	0.6
	20. 운수 및 보관	128,527.7	1.3	6,368.4	0.3
	21. 통신 및 방송	242,996.8	2.4	38,051.1	2.0
	22. 금융 및 보험	304,820.1	3.1	15,892.0	0.8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98,838.5	8.0	28,022.0	1.4
	24. 공공행정 및 국방	8,988.2	0.1	720.2	0.0
	25. 교육 및 보건	97,206.9	1.0	4,572.1	0.2
	26. 사회및기타서비스	50,463.2	0.5	2,933.9	0.2
	27. 기타	0.0	0.0	71,398.5	3.7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2,519,577.5	25.2	64,314.9	3.3
	29. 식음료	888,995.2	8.9	185,958.4	9.6
	30. 숙박업	2,455,527.6	24.6	47,100.8	2.4
	31. 관광교통	193,294.3	1.9	266,223.4	13.7
	32. 운수보조업	38,708.3	0.4	381.7	0.0
	33. 차량임대업	143,553.5	1.4	25,997.5	1.3
	34. 여행업	129,218.5	1.3	3,819.0	0.2
	35. 문화예술공연	111,676.8	1.1	10,807.3	0.6
	36. 운동경기	102,824.3	1.0	1,584.2	0.1
	37. 오락 및 유흥	349,649.6	3.5	7,075.9	0.4
총효과		9,988,405.1	100.0	1,945,817.0	100.0
직접효과		6,686,647.7	66.9	657,079.9	33.8
간접효과		3,301,757.4	33.1	1,288,737.1	66.2

〈표 5-15〉 외래객 관광지출의 세수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부문명칭			세수유발효과	
				비율(%)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품	7,986.6	0.7
		2. 광산품	59.3	0.0
제조업		3. 음식료품	120,286.0	10.4
		4. 섬유 및 가죽제품	4,479.0	0.4
		5. 목재 및 종이제품	6,657.3	0.6
		6. 인쇄 및 복제	3,975.6	0.3
		7. 석유 및 석탄제품	86,285.6	7.4
		8. 화학제품	7,298.8	0.6
		9. 비금속광물제품	326.5	0.0
		10. 제1차 금속제품	320.2	0.0
		11. 금속제품	790.6	0.1
		12. 일반 기계	1,166.2	0.1
		13. 전기 및 전자기기	1,586.5	0.1
		14. 정밀기기	527.4	0.0
		15. 수송장비	3,042.3	0.3
		16. 기타제조업제품	3,746.2	0.3
전력가스 및 건설업		17. 전력, 가스및수도	23,792.7	2.1
		18. 건설	4,868.9	0.4
서비스업		19. 도매	2,557.6	0.2
		20. 운수 및 보관	4,645.1	0.4
		21. 통신 및 방송	24,859.6	2.1
		22. 금융 및 보험	25,884.4	2.2
		2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6,045.7	7.4
		24. 공공행정 및 국방	0.6	0.0
		25. 교육 및 보건	375.8	0.0
		26. 사회및기타서비스	6,321.5	0.5
		27. 기타	0.0	0.0
	관광산업	28. 소매업(관광쇼핑)	51,119.0	4.4
		29. 식음료	231,109.3	19.9
		30. 숙박업	250,911.8	21.6
		31. 관광교통	16,273.4	1.4
		32. 운수보조업	929.7	0.1
		33. 차량임대업	6,161.6	0.5
		34. 여행업	5,964.9	0.5
		35. 문화예술공연	5,982.9	0.5
		36. 운동경기	24,444.3	2.1
		37. 오락 및 유흥	138,654.0	12.0
총효과			1,159,436.7	100.0
직접효과			700,945.0	60.5
간접효과			458,491.7	39.5

제4절 소결

□ 관광지출액 자료 활용의 한계

○ 국내관광객의 관광지출액 구성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국민여행실태조사(2010)에서 제공하는 관광관련 항목별 지출액 구성비와 한국관광위성계정(2010)에서 산출한 관광관련 항목별 지출액 구성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외래객 관광지출의 관광관련 항목별 지출액 구성비를 산출하는 데에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0)의 관광관련 항목별 지출액 구성비를 본 연구에서 분류한 관광산업체계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제관광통계에서 산출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US$1,173)과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0)의 외국인 한국여행중 개인지출경비(US$1,224) 간에 약 US$51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관광객 및 외래객 관광지출의 총 효과

○ 추정된 2010년 국내관광객의 지출액 16조 8,597억 74백만원과 외국관광객의 지출액 11조 9,342억 22백만원, 총 28조 7,939억 96백만원을 관광산업과 관련한 각종 유발승수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16〉과 같음

○ 2010년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지출 생산유발효과는 총 51조 1,442억 96.3백만원으로 국내관광객 30조 1,314억 40.2백만원, 외래관광객의 21조 128억 56.1백만원으로 구성됨

○ 소득유발효과는 총 9조 3,495억 37.1백만원으로 국내관광객이 5조 3,629억 49.8백만원, 외래관광객이 3조 9,865억 87.3백만원을 각각 창출하였다고 분석됨

○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국내관광객이 40만 6,955명을 외래관광객이 38만 1,632명을 창출해 총 78만 8,587명의 취업유발승수효과를 나타냄

○ 고용유발효과의 경우도 국내 관광객이 21만 1,713명, 외래관광객이 15만 7,877명을 창출해 총 36만 9,590명의 고용을 유발함

○ 부가가치유발승수효과는 국내관광객이 12조 3,945억 19.5백만원, 외래관광객이 9조 9,884억 5.1백만원으로 총 22조 3,829억 24.6백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

○ 수입유발효과는 국내관광객 4조 4,652억 54.5백만원, 외래관광객 1조 9,458억 17백만원으로 총6조 4,110억 71.5백만원을 창출함

○ 세수승수효과는 국내관광객 1조 8,335,억 77.3백만원, 외래관광객 1조 1,594억 36.7백만원으로 총 2조 9,930억 14백만원의 세수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

〈표 5-16〉 2010년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지출 유발효과 추정

(단위 : 백만원, 명, %)

파급효과	국내관광객 (1)	비율 (%)	외래관광객 (2)	비율 (%)	합계 (1+2)
1. 생산유발효과	30,131,440.2	58.9	21,012,856.1	41.1	51,144,296.30
2. 소득유발효과	5,362,949.8	57.4	3,986,587.3	42.6	9,349,537.10
3. 취업유발효과(명)	406,955	51.6	381,632	48.4	788,587
4. 고용유발효과(명)	211,713	57.3	157,877	42.7	369,590
5. 부가가치유발효과	12,394,519.5	55.4	9,988,405.1	44.6	22,382,924.60
6. 수입유발효과	4,465,254.5	69.6	1,945,817.0	30.4	6,411,071.50
7. 세수유발효과	1,833,577.3	61.3	1,159,436.7	38.7	2,993,014.00

제 6 장 결 론

□ 요약

○ 한국은행(2011)에서 제공한 '200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승수를 분석한 결과, 관광산업의 생산·소득 유발승수(각각 1.6526, 0.3396)는 전산업 평균(1.8826, 0.310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고용유발승수(각각 0.0209, 0.0120)는 전산업 평균(0.0152, 0.0098)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임을 입증함

○ 외화획득 기여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의 경우 관광산업이(83.3%)이 전산업의 평균(73.1%), 제조업의 평균(59.5%)보다 모두 높게 분석됨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율(57.2%)은 전산업 평균(42.2%)보다 높으며, 제조업 평균(25.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2010년 국민 국내관광 지출액(16조 8,597억 74백만원)과 외래객 관광 지출액(11조 9,342억 22백만원)을 분석하여 관광관련 지출항목을 산업연관표의 관광산업부문에 투입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51조 1,442억 96.3백만원으로 국내관광객 30조 1,314억 40.2백만원, 외래관광객의 21조 128억 56.1백만원으로 구성됨

○ 소득유발효과는 총 9조 3,495억 37.1백만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국내관광객이 40만 6,955명을 외래관광객이 38만 1,632명을 창출해 총 78만 8,587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냄

○ 고용유발효과의 경우도 국내 관광객이 21만 1,713명, 외래관광객이 15만 7,877명을 창출해 총 36만 9,590명의 고용을 유발함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국내관광객이 12조 3,945억 19.5백만원, 외래관광객이 9조 9,884억 5.1백만원으로 총 22조 3,829억 24.6백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

□ 시사점

○ 관광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대상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산업연관표상에서 관광산업분류체계를 분석목적에 적합하게 분류 ·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이 타산업보다 소득 · 고용 · 취업 · 부가가치 · 세수유발승수, 부가가치율, 외화가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이 국민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함을 증명함

○ 관광산업의 생산 · 소득 · 취업 · 고용 · 부가가치유발계수가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 및 관광수요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관광산업의 취업 · 고용유발승수를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에 제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광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신규고용창출에 유리한 산업임을 입증함

참고문헌

1. 국내·외 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8 관광통계국제권고안(IRTS2008) 번역 및 해설』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이강욱(1997),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이강욱류광훈(1999),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국 단위의 관광산업의 승수효과 분석』, 한국관광연구원

이강욱류광훈(1999),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이강욱최승묵(2003),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강욱(2009),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강욱(2010),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2008년 기준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한국은행(198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2011), 『2009년 전국산업연관표』

Smith, S. L. J, (1988). Defining tourism: a supply-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2), 179-190.

UNWTO(2002),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Conceptual Framework

2. 인터넷 사이트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ptour1/index.do
국가통계포털(KOSIS) www.kosis.kr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한국은행 http://www.bok.or.kr

ABSTRACT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ourism Industry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s by using 2009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and secondly to suggest tourism policy implication in conjunction with tourism multiplier effects. This study begins with a classification of tourism industry, based on the SICTA criteria.

As with the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in the tourism sector in '2008 input-output tables', the tourism economic impacts in '2009 input-output tables' have also shown that the multiplier effects of employment, taxation and valued added in the tourism sector a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The economic induced effects by the foreign visitors' expenditures, together with domestic tourism expenditure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Korean national economy, including employment, income, output, and value added.

This study has proven that tourism industry is important to the Korea national economy as a strategic industry for economic growth.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also to provide rationales for decision-making in the tourism polic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ourism investment and creation of tau in □ fed